

통합치료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통합치료학회

한국통합치료학회 임원진

회 장 : 노남숙(명지대학교)

부 회 장 : 최명선(명지대학교)

총 무 이 사 : 임선자(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회 : 이상은(명지대학교) 선우현(명지대학교) 최예린(선문대학교)

이아라(경상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임지숙(명지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 박은선(명지대학교)

윤 리 위 원 회 : 조민자(명지대학교)

홍 보 위 원 회 : 송승하(명지대학교) 강진경(명지대학교)

학 술 위 원 회 : 정은정(명지대학교)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학제 간 연구위원회 : 홍혜영(명지대학교) 최광현(한세대학교) 양심영(숭의여자대학교)

간 사 : 정혜전 김명선 정제윤

감 사 : 문소영(명지대학교) 설혜윤(이화여자대학교)

<차 례>

-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분화와 갈등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주정란 · 홍혜영 5
-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에 대한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단일 사례연구
손보경 · 선우현 31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 69

<별첨 2> 투고규정 / 72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 74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81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분화와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주정란* · 홍혜영**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대처, 회피, 감정 및 행동표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30대~40대 기혼 남녀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원가족 건강성, 결혼만족도, 자기분화, 갈등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8.0, AMO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과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원가족 건강성은 결혼만족도, 자기분화, 합리적 대처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자기분화는 합리적 대처, 결혼만족도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결혼만족도는 합리적 대처와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매개효과 검증 결과 연구모형 1(합리적 대처)에서는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자기분화와 합리적 대처가 각각의 매개효과가 있었고, 연구모형 2(회피)에서 자기분화와 회피는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를 매개하지 않았다. 연구모형 3(감정 및 행동표출)에서는 자기분화는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를 매개하지 않았지만 감정 및 행동표출은 매개효과가 있었다. 셋째,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와 합리적 대처, 자기분화와 회피, 자기분화와 감정 및 행동표출의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이중매개효과가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원가족 경험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 수준은 개인의 갈등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가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담에서 부부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거나 부부교육, 부모교육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원가족 건강성, 결혼만족도, 자기분화, 갈등대처방식

* 본 연구는 주정란(2022)의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 2025년 5월 21일 ■ 최종 수정일 : 2025년 8월 10일 ■ 게재 확정일 : 2025년 8월 19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달과 변화로 인해 가족의 형태도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형태가 전체 가구 형태의 64.7%이고, 이는 부부가 가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24). 하지만 2024년 이혼 통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에 이혼 건수는 10년 넘게 매년 9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천여 건으로 그 중에서 30~40대의 이혼율은 전체 이혼율의 47.4%를 차지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는 전체 이혼의 42.8%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통계청, 2024).

부부의 결혼생활이 불안정할 경우 자녀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부모의 갈등이 높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은 부모의 갈등이 낮다고 지각한 양부모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는 높은 반면에 정서조절, 자아존중감은 낮아서 정서적으로 더 취약하다(정소희, 2011; 서수균, 조아라, 2016). 또한 부부갈등이 많았던 부모의 자녀들은 부부갈등이 적었던 가정의 자녀들보다 대학생 시절 연인관계에서 낮은 탄력성을 보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한영숙, 2017), 그들이 유년시절 원가족에서의 경험과 정서가 성인이 된 후에 대인관계나 결혼 이후의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천성문, 함경애, 황지인, 2014; Faezeh Baghaei, Majid Yousefi Afrashteh, 2022) 가족의 중심인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원가족이란 개인이 성장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속해있는 가족을 의미하는데 보웬(Bowen, 1976)은 다세대 가족체계이론에서 원가족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족치료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가족건강성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기결정성을 높이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인생 전반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김경신, 박향실, 2015). 또한 원가족 경험이 긍정적이지 못한 경우 거절과 상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애착 회피를 보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고, 원가족 경험이 건강

하다고 인식한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안정감을 토대로 관계에서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이 없어서 원가족 경험은 개인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김병수, 2014). 이처럼 원가족에서의 정서와 경험이 학습되어 결혼 후 형성된 가족에서도 재현되고(Gavin & Wamboldt, 1992) 기혼 부부의 원가족 경험은 그들의 결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김민정, 임준호 2019; 신건호 2020).

부부의 결혼생활을 측정하는 요인들 중에 결혼만족도를 들 수 있는데, 결혼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연령, 소득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성격, 애착, 자기분화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인 요인과 부부의 의사소통, 갈등대처방식 등의 대인관계 변인으로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었다(윤수란, 2013; Besser, Goetz, & Shackelford, 2008). Bowen(1976)은 다세대 가족체계이론에서 원가족의 정서가 다음 세대로 전수될 때 중요한 개념으로 자기분화를 제시하였는데 자기분화는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신체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성과 정서적 자주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원가족 경험과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원가족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분리시키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함으로써 일상에서 우울감과 불안을 심리적 안녕을 유지할 수 있다(정혜정, 조은경, 2009). 하지만 타인과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내적 갈등 때문에 정서표현을 억제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감소시킨다(김정민, 노향지, 2020). 또한, 분노를 표현하는 빈도가 높은 경우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다시 정서조절 곤란을 경험하고(서혜영, 이명인, 황순정, 2021), 우울에 취약한 사람은 분노표출의 의사소통을 통해 타인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역기능적으로 대인관계를 맺는다(박은혜, 정남운, 2014).

이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중 갈등대처방식에 초점을 두었다. 갈등대처방식은 개인이 갈등이나 문제상황에서 문제를 다루고 적응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최규련, 1995), 이러한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은 건강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갈등상황에서 주체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반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여 그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갈등상황을 회피하는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대처한다(남순현, 2005). 즉 자기분화 수준이 높으면 의사소통의 수준 또한 높고, 기능적인 방법을 사용(어항숙, 윤운성, 2017)하고 긍정적인 문제지향과 합리적 해결기술을 돕는 반면 자기

분화 수준이 낮으면 정서조절의 곤란과 정서인식명확성을 감소시켜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김보연, 라수현, 2024),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아지고 타인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한혜림, 이지민, 2022). 그러므로 기혼 부부의 원가족 건강성이 어떤 요인의 영향으로 결혼만족도를 약화시키고, 상담 장면에서 결혼만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상담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수용과 애정을 받지 못하고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경험한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고 부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을 사용(권민혜, 김혜원, 이지연, 2020) 하기 때문에 원가족 건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년 이상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성인 남녀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며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법은 다른데 이러한 대처방식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가족 건강성은 이미 개인의 유년시절 경험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담적 개입이 어렵지만 갈등대처방식은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변화가 가능한 영역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갈등대처방식에 주목하였다.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변량에 37%를 의사소통 변인이 설명하였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이영호, 이정은, 2000). 반대로 이성관계에서 상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클수록 관계에서 개선의 노력을 쉽게 포기하고 회피적인 양상을 보였고 이러한 부정적인 갈등대처는 관계만족도를 낮추는(서수균, 이지연, 2011)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을 중심으로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주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정하거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30~40대 시기는 직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요한 시기로 사회와 가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 수준도 높다. 또한 이 시기는 결혼생활주기 중 이혼율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부부의 대화 단절, 의사소통의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정서적 거리감과 관계회복하도록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기분화와 갈등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를 고려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갈등대처방식의 각각의 매개효과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상담적 개입이나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기분화와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원가족 건강성, 결혼만족도, 자기분화, 갈등대처방식(합리적 대처, 감정 및 행동 표출, 회피),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갈등대처방식(합리적 대처, 감정 및 행동 표출, 회피)은 각각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갈등대처방식(합리적 대처, 감정 및 행동표출, 회피)은 유의미한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전국의 30세~49세 사이의 기혼 남녀 340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설문이 불가능하여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고 응답은 100%였다. 연구참여자 중 남자는 161명(47.4%) 여자는 179명(52.6%)이었고, 남자의 평균연령은 37.5세 표준편차는 5.3, 최저연령은 30세, 최고연령은 49세였고, 여자의 평균연령은 38.3세 표준편차는 4.6, 최저연령은 30세, 최고연령은 49세였다. 결혼 기간은 5년 미만인 162명(47.6%), 5년 이상 ~ 10년 미만 99명(29.1%), 10년 이상 ~ 20년 미만 77명(22.6%), 20년 이상이 2명(0.6%)이었다. 자녀 수는 1명이 180명(52.9%)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이 105명(30.9%)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직업은 사무직 종사자가 122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경영관리직 종사자가 102명(30.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2. 연구 도구

가. 원가족 건강성 척도 (The Family-of-Origin Scale)

원가족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Hovestadt(1985)가 개발한 Family of Origin Scale 을 최현미(1997)가 번안한 원가족 척도 The Family-of-Origin Scale 중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측정하는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친밀감, 자율감의 두 하위영역으로 나뉘고 자신의 원가족 건강성을 어떻게 지각하는 지를 자기보고식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 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현미(1997)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4이며 하위요인들의 Cronbach's α 는 친밀감 .93, 자율감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친밀감은 .75, 자율감은 .84로 나타났다.

나.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nyder(1979)가 개정한 Marital Satisfaction Inveontory Revised(MSI-R)을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 중에서 전반적 불만족 척도 22문항을 사용하였다.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태도를 자기보고식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낸다. 권정혜와 채규만(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다. 자기분화 척도

자기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혜정, 조은경(2007)이 개발한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38문항을 사용했다.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기분화 수준을 나타낸다. 정혜정·조은경(2007)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89이었고, 각각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반응 .84, 자기 입장 .73, 타인과의 융합 .78, 정서적 단절 .69, 정서적 융합 .8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 는 .90 이었고, 정서적 반응 .82, 자기 입장 .77, 타인과의 융합 .82, 정서적 단절 .62, 정서적 융합 .79로 나타났다.

라. 갈등대처방식 척도(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

갈등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Larsen, McCubbin, Olson(1982)의 가족대처전략 척도(F-Cpes)를 수정한 최규련(1994)의 갈등대처방식 척도 중 합리적 대처, 감정 및 행동 표출, 회피의 세가지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합리적 대처 .78, 감정 및 행동표출 .80, 회피 .7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 는 .75였으며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합리적 대처 .79, 감정 및 행동표출 .87, 회피 .78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과 가설검증을 위해 SPSS 28.0와 AMO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사용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AMOS 28.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경로 계수 값을 산출하였다. 여섯째,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확인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일곱째,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개별매개효과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왜도가 절대값 2보다 작았고 첨도가 절대값 7보다 작았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Kline, 2015).

원가족 건강성은 결혼만족도($r = .42, p < .01$), 합리적 대처($r = .37, p < .01$), 자기분화($r = .29, p < .01$)와는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회피($r = -.15, p < .01$)와 감정 및 행동표출($r = -.34, p < .01$)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합리적 대처와 결혼만족도($r = .52, p < .01$)는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회피와 감정 및 행동표출과 결혼만족도는 각각($r = -.48, p < .01$),($r = -.54, p < .01$)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자기분화와 합리적 대처($r = .22, p < .01$)는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회피($r = -.38, p < .01$)와 감정 및 행동표출은($r = -.45, p < .01$)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는($r = .36, p < .01$)으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합리적 대처와 회피($r = -.16, p < .01$), 합리적 대처와 감정 및 행동표출($r = -.42, p < .01$)은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감정 및 행동 표출과 회피($r = .39, p < .01$)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결과

	1	2	3-1	3-2	3-3	4
1. 원가족 건강성	1					
2. 결혼만족도	.42**	1				
3-1. 합리적 대처	.37**	.52**	1			
3-2. 회피	-.15**	-.48**	-.16**	1		
3-3. 감정 및 행동표출	-.34**	-.54**	-.42**	.39**	1	
4. 자기분화	.29**	.36**	.22**	-.38**	-.45**	1
평균(M)	3.52	3.62	3.80	2.74	2.18	2.50
표준편차 (SD)	.78	.80	.68	.80	.92	.62
왜도	-.50	-.28	-.67	-.08	.80	-.002
첨도	-.043	-.415	.536	-.441	-.131	.949

** $p < .01$

2. 측정모형 검증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으나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측정변수가 3개 이상일 경우 적절한 모형 적합성을 보인다는 연구(우종필, 2015)를 바탕으로 문항 묶음(item parceling)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변수를 생성하였다. 측정모형 1(합리적 대처)의 적합도 지수를 보면, χ^2 은 291.809, TLI=.952, CFI=.960, RMSEA=.068(90% 신뢰구간=.059~.078)로 나타났다.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을 보면 모두 유의한 수준을 보여서 측정모형1(합리적 대처)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측정모형 2(회피)의 적합도는 χ^2 =271.285, TLI=.956, CFI=.964, RMSEA=.064(90% 신뢰구간=.055~.074)로 모두 유의한 수준을 보여서 측정모형 2(회피)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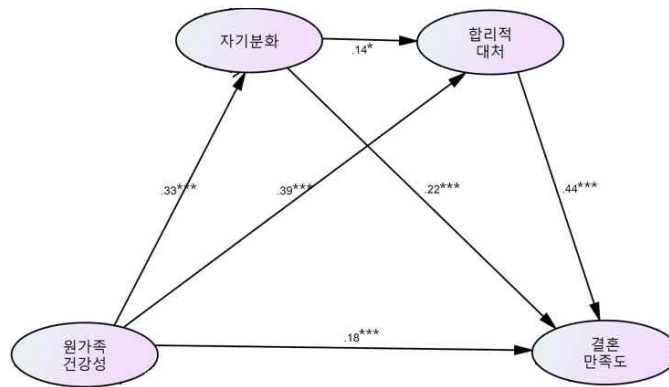
측정모형 3(감정 및 행동표출)의 적합도는 χ^2 =295.795, TLI=.954, CFI=.963, RMSEA=.069(90% 신뢰구간=.060~.079)로 모두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측정모형 3(감정 및 행동표출) 또한 적합하게 나타났다.

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는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경로와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이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대처, 회피, 감정 및 행동표출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로 가는 경로,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이 자기분화와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대처, 회피, 감정 및 행동표출을 이중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구조모형을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 구조모형 1(합리적 대처) 검증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고 표 2와 같이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원가족 건강성은 자기분화(β =.325, p <.001), 합리적 대처(β =.391, p <.001), 결혼만족도(β =.185, p <.001)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기분화는 합리적 대처(β =.142, p <.05)와 결혼만족도(β =.220, p <.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합리적 대처는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정적 영향(β =.439, p <.001)을 미쳤다.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구조모형 1(합리적 대처) 검증

<표 2> 구조모형 1(합리적 대처)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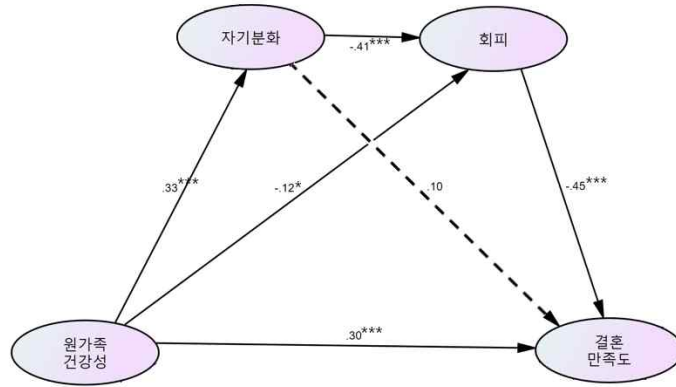
경로	B	β	S.E.	t
원가족 건강성 → 자기분화	.259	.325	.046	5.575***
원가족 건강성 → 합리적 대처	.303	.391	.047	6.402***
자기분화 → 합리적 대처	.139	.142	.059	2.362*
원가족 건강성 → 결혼만족도	.191	.185	.056	3.390***
합리적 대처 → 결혼만족도	.586	.439	.080	7.309***
자기분화 → 결혼만족도	.286	.220	.066	4.313***

* $p < .05$, ** $p < .01$, *** $p < .001$

나. 구조모형 2(회피) 검증

구조모형 2(회피)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족 건강성은 자기분화와($\beta = .325$, $p < .001$) 결혼만족도($\beta = .302$, $p < .001$)에는 정적인 영향을, 회피에는 부적인 영향($\beta = -.120$, $p < .05$)을 미쳤다.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회피 경향이 낮아($\beta = .302$, $p < .001$)졌고, 회피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beta = -.450$, $p < .001$)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기분화가 결혼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않았다.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구조모형 2(회피) 검증

<표 3> 구조모형 2(회피)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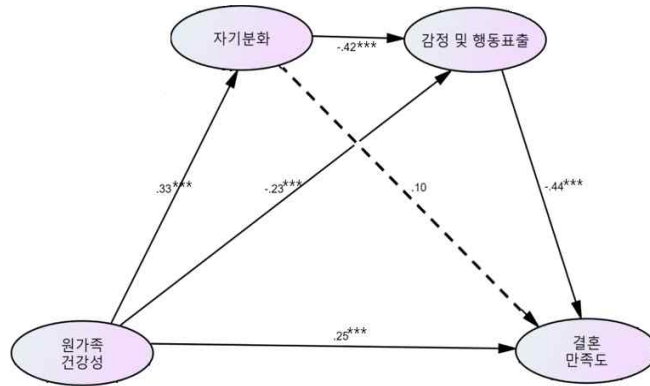
경로	B	β	S.E.	t
원가족 건강성 → 자기분화	.259	.325	.046	5.575***
원가족 건강성 → 회피	-.138	-.120	.064	-2.161*
자기분화 → 회피	-.592	-.409	.085	-6.977***
원가족 건강성 → 결혼만족도	.316	.302	.052	6.094***
회피 → 결혼만족도	-.408	-.450	.070	-5.812***
자기분화 → 결혼만족도	.130	.099	.076	1.699

* $p < .05$, ** $p < .01$, *** $p < .001$

다. 구조모형 3(감정 및 행동표출) 검증

구조모형 3(감정 및 행동표출)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족 건강성은 자기분화($\beta = .327$, $p < .001$)와 결혼만족도($\beta = .254$,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감정 및

행동표출($\beta = -.230, p < .001$)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감정 및 행동표출($\beta = -.422, p < .001$)의 경향은 낮았고, 감정 및 행동 표출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beta = -.441, p < .001$)는 낮아졌다. 자기분화는 결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정적인 방향성을 나타냈다.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구조모형 3(감정 및 행동표출) 검증

<표 4> 구조모형 3(감정 및 행동표출)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원가족 건강성 → 자기분화	.260	.327	.046	5.604***
원가족 건강성 → 감정 및 행동표출	-.277	-.230	.065	-4.271***
자기분화 → 감정 및 행동표출	-.637	-.422	.087	-7.354***
원가족 건강성 → 결혼만족도	.265	.254	.053	4.980***
감정 및 행동표출 → 결혼만족도	-.382	-.441	.050	-7.646***
자기분화 → 결혼만족도	.127	.097	.072	1.746

* $p < .05$, ** $p < .01$, *** $p < .001$

4. 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 검증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갈등대처방식의 하위 요인인 합리적 대처, 회피, 감정 및 행동표출이 자기분화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가. 구조모형 1(합리적 대처)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 1(합리적 대처)에서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 ($B=.273$, $CI=.184\sim.379$, $p<.01$), 원가족 건강성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합리적 대처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B=.036$, $CI=.008\sim.076$, $p<.05$), 자기분화가 합리적 대처를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 ($B=.081$, $CI=.008\sim.172$, $p<.05$)는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아지고,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을 합리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부의 결혼만족 역시 상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혼만족을 높이는 데에는 자기분화와 합리적 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 구조모형 2(회피)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 2(회피)에서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 ($B=.153$, $CI=.085\sim.231$, $p<.01$), 원가족 건강성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하여 회피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B=-.153$, $CI=-.239\sim-.087$, $p<.01$), 자기분화가 회피를 매개로하여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경로 ($B=.241$, $CI=.132\sim.402$, $p<.01$)는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가족 건강성이 회피로 가는 직접효과 경로와 자기분화가 결혼만족도로 가는 직접효과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 경험이 건강할수록 자기분화 수준을 높이고 갈등상황에서 회피적인 대처를 지양함으로써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피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다. 구조모형 3(감정 및 행동표출)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 3(감정 및 행동표출)에서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B=.202$, $CI=.132\sim.288$, $p<.01$), 원가족 건강성이 감정 및 행동표출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B=-.166$, $CI=-.263\sim-.094$, $p<.01$), 자기분화가 감정 및 행동표출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B=.244$, $CI=.157\sim.359$, $p<.01$)는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분화에서 결혼만족도로 가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데 이는 자기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감정 및 행동표출의 매개효과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고 부부관계에서 역기능적인 대처가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하여 결혼 만족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이중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팬텀변수를 사용하여 매개변인의 개별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결과를 보면 첫째,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합리적 대처의 매개효과, 자기분화와 합리적 대처의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분화, 회피의 각각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분화와 회피의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감정 및 행동표출의 매개효과, 자기분화와 감정 및 행동표출의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 구조모형 1(합리적 대처)의 개별효과 및 이중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95%신뢰구간
원가족 건강성 → 자기분화 → 결혼만족도	.074**	.027	.034 ~ .137
원가족 건강성 → 합리적 대처 → 결혼만족도	.178**	.037	.119 ~ .263
원가족 건강성 → 자기분화 → 합리적 대처 → 결혼만족도	.021*	.011	.006 ~ .051

* $p<.05$, ** $p<.01$, *** $p<.001$

<표 6> 구조모형 2(회피)의 개별효과 및 이중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95%신뢰구간
원가족 건강성 → 자기분화	.034	.026	-.015 ~ .093
→ 결혼만족도			
원가족 건강성 → 회피	.056	.031	-.006 ~ .120
→ 결혼만족도			
원가족 건강성 → 자기분화	.063***	.021	.031 ~ .118
→ 회피			
→ 결혼만족도			

* $p<.05$, ** $p<.01$, *** $p<.001$

<표 7> 구조모형 3(감정 및 행동표출)의 개별효과 및 이중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95%신뢰구간
원가족 건강성 → 자기분화	.033	.024	-.013 ~ .082
→ 결혼만족도			
원가족 건강성 → 감정 및 행동표출	.106**	.028	.057 ~ .167
→ 결혼만족도			
원가족 건강성 → 자기분화	.063**	.018	.033 ~ .103
→ 감정 및 행동표출			
→ 결혼만족도			

* $p<.05$, ** $p<.01$, *** $p<.001$

V. 논의

본 연구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와 갈등대처 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대처, 회피, 감정 및 행동표출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변인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건강한 원가족 경험이 개인의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 원가족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수록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김민정, 임준호, 2019; 신건호, 2020; 최현미, 1997)와 결과가 일치한다.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은 자기분화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원가족 건강성이 높으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자기분화수준 또한 높다(김은미, 손수민, 2020; 정혜정, 조은경, 2009)는 것을 나타낸다. 원가족 건강성은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대처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회피와 감정 및 행동표출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긍정적인 원가족 경험을 할수록 안정애착을 형성하여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고(윤혜림, 2016)을 사용하고 반대의 경우 회피와 감정 및 행동표출의 역기능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연구(김영희, 유희남, 2011; Halford & Kath, 200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자기분화와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대처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회피, 감정 및 행동표출의 대처방식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는데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갈등 상황을 적절히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회피하고(남순현, 2005), 목표지향행동의 수행과 충동통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배선영, 이인수, 2018) 감정과 행동을 표출하는 성숙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분화는 결혼만족도와도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자기분화수준을 보이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문제를 경험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부부간의 친밀감이 높다는 선행연구(박희정, 변상해, 2017; 신현정, 홍혜영, 2018; 유금란, 임승희, 2020)와도 같은 결과이다.

결혼만족도와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대처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회피, 감정 및 행동표출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만족도와 갈등대처방식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김승희, 김은영, 2014; 천성문 외, 2014; Ellen & Jennifer, 2000; Husein, 2012)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부부가 어떻게 갈등상황을 해결하느냐는 결혼생활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은 부부의 갈등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합리적 대처는 각각의 단일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 건강성이 높은 사람은 건강한 자기분화를 이루어서 자신의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이루어나가며 결혼만족도 또한 높았다. 이는 가족의 상호작용방식이 다음 세대에 전수될 때 자기분화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유년시절의 건강한 가족경험을 통해 자기분화

를 이룰수록 결혼 후 부부의 친밀감을 높인다는 연구(정민정, 2017)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건강한 자기분화가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의 고유성과 남들과는 구분되는 개별성이 유지될 때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다는 연구(권순용, 임수연, 2011)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합리적 대처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한 성인애착은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을 위협으로 인식하여 적응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부관계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선행연구(강수경 외, 2018)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합리적 대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건강한 원가족 경험은 자기분화 수준을 높이고, 합리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며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원가족 건강성 수준이 높을수록 이성적 대처를 하게 되고 이는 부부의 적응을 높인다는 것(박미화, 홍지영, 2019)을 확인했다.

셋째,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사이에서 자기분화와 회피의 각각의 단일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상황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회피가 상반된 작용을 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천성문 외, 2014)에서는 회피가 부부관계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반대로 회피가 상대방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갈등을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을 막음으로써 관계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정금희, 2022; 김가을, 권정혜, 양은주, 2013; Ifert & Roloff, 2000)도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회피를 적절히 사용할 경우 갈등관계에서 적응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지나칠 경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성인기 이후 다른 관계에서 이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져서 오히려 사람과의 거리를 두거나 갈등상황을 피하고(최연화, 2012; 박미화, 홍지영, 2019) 이는 결혼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선행연구(김보영, 홍지희, 2021)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자기분화의 단일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감정 및 행동표출의 단일매개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이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하는 사람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서혜영 외, 2021)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자기분화와 감정 및 행동표출은 순차

적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상황을 객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의 사용이 적다는 선행연구(박윤옥, 2013; 박미화, 홍지영, 2019)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상담에서 부부의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을 줄이고 합리적 대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과 연습을 통해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기혼 남녀의 부부갈등 문제를 다룰 때, 부부의 원가족 경험을 살펴보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년시절 중요한 타인인 가족과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청사진이 되기 때문이다. 가족과 건강한 애착을 형성 못하고 주체성, 독립성을 존중받지 못한 경우, 자기분화 수준이 낮아서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갈등상황에서도 상황을 회피하거나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함으로써 관계를 악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원가족 경험을 탐색하고, 자기분화 수준과 갈등대처방식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기분화 수준이 높더라도 갈등상황에서 회피적인 태도나 감정과 행동을 표출하는 분노표출 방식은 관계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기능적인 대처방식을 터득하도록 도움으로써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만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 건강성이 자기분화와 갈등대처방식을 거쳐 어떻게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원가족 건강성, 자기분화,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갈등대처방식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면서 결혼만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특히 갈등대처방식을 합리적 대처, 회피, 감정 및 행동표출의 세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검증함으로써 원가족 건강성이 각각의 갈등대처방식을 매개하는 과정과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갈등대처방식이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밝혔고 이후의 연구들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존에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의 연구를 결혼 중기의 부부로 확대하였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있었지만 특정 지역 거주자 또는 신혼부부나 중년기 부부에 한정되었고 (김민정, 임준호, 2019) 자녀양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 중기 부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30~40대는 이혼율이 가장 높

은 시기이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로서 부부의 관계는 자녀의 ADHD, 학교에서의 수업태도, 교우관계에도 영향(이진숙, 2004)을 미치기 때문에 부부의 결혼만족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데 본 연구는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연구의 범위를 신혼기 이후와 중년기 이전의 단계에 있는 결혼 중기의 30~40대 기혼 남녀로 넓혔다. 원가족 건강성이 중년기 부부의 적응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원종숙, 2024)를 보았을 때 부부가 건강하게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건강하게 중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부부상담, 가족상담에서 원가족을 탐색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강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여 갈등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자기분화는 원가족 경험을 통해 형성된 특징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한 변화를 야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부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게 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갖게할 수 있고, 역기능적인 원가족 경험을 통해 건강한 자기분화를 이루지 못한 내담자가 배우자와의 갈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적응적인 갈등대처방법을 배우고 적용함으로써 부부의 친밀감을 높이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혼의 위기 및 이혼 소송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역할극, 자기노출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자기표현을 촉진하고, 긍정적 문제지향과 해결기술을 증진시키면 이로인해 이혼의향도가 감소하였다(박성주, 박재황, 2011). 이처럼 해결중심상담에서 합리적 대처방법을 활용하여 갈등을 해결한다면 부부의 상호 이해를 돕고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다(S. Pirmoradi, N. Amini, M. Keykhosrovani, A. Shafiabadi, 2023). 기혼 부부의 관계는 자녀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일 만족도(김태숙, 2022)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상담에서의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어서 전국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이 가능하였으나 응답자의 69%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기혼 남녀를 대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응답인원을 제한함으로써 균등한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 대상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응답자의 현재 거주지 뿐만 아니라 유년시절의 거주 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원가족 건강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은 자기보고식 Likert척도로 응답이 이루어졌고 또한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100% 온라인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자는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응답에 방어·편향적인 태도를 보여서 응답자의 반응이 실제와 달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응답자가 설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대면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터뷰하는 방법을 통해 좀 더 정밀한 응답자의 반응을 측정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30~40대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부부의 상호적인 영향을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 쌍을 대상으로 연구하여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부부관계에서 상호의존성을 알아볼 수 있고 부부상담이나 가족상담 장면에서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수경, 김해미, 정미라(2018). 임신기 부부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355-375.
- 권민혜, 김혜원, 이지연(2020). 대학생들이 지각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 정서표현억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대인관계문제의 구조적 관계. *교육과 학습*, 10(4), 163-193.
- 권순용, 임수연(2011). 원가족의 건강성, 자기분화, 부부관계의 인과적 관계의 성차. *가족과 문화*, 23(4), 67-94.
- 권정혜, 채규만(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8(1), 123-139.
- 김가을, 권정혜, 양은주(2013). 대인관계갈등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조절효과: 온오프라인 환경과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8(2), 279-294.
- 김민정, 임준호(2019). 맞벌이 가족이 인식한 원가족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7), 807-816.
- 김병수(2014). 대학생의 원가족 건강성이 친밀한 관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 52(4), 337-245.
- 김보연, 라수현(2024). 대학생의 자기분화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로 조절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5(3), 21-42.
- 김보영, 홍지희(2021). 부모의 부부갈등이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부부갈등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349-1374.
- 김승희, 김은영(2014). 신학생 부부의 원가족 건강성 지각과 갈등대처행동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4), 79-102.
- 김영희, 유희남(2011).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대처행동 및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19(3), 141-158.
- 김은미, 손수민(2021). 아버지의 원가족 건강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분화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6(1), 55-81.
- 김정민, 노향지(2020).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방어적 양가성 및 또래지지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9(3), 297-310.
- 김태숙(2022). 기혼 취업여성의 부부친밀감과 성평등의식이 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갈등의 매개효과 중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6), 487-504.
- 남순현(역)(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 박미화, 홍지영(2019).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갈등대처방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659-689.
- 박성주, 박재황(2011).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3(1), 47-73.
- 박윤옥(2013).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분화수준과 분노표현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 정남운(2014). 우울취약성과 대인관계문제에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학생생활연구*, 34, 385-406.
- 박희정, 변상해(2017). 재혼부부의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236 - 252.
- 배선영, 이인수(2018). 유기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분화를 통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5), 317-336.
- 서수균, 이지연(2011). 비합리적 신념과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0(3), 775-791.
- 서수균, 조아라(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3), 275-293.
- 서혜영, 이명인, 황순정(2021).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295-305.
- 신건호(2020). 아버지의 원가족 건강성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의 매개효과와 자녀가치의 조절효과. *인문사회21*, 11(5), 589-604.
- 신현정, 홍혜영(2018). 부부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327-1353.
- 어항숙, 윤운성(2017). 남편과 아내의 원가족건강성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분화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22(3), 493-519.
- 여성가족부(2024).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다차원성 개념의 항목묶음 편향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44(4), 1131-1147.
- 원종숙(2024). 중년여성의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에 의한 갈등대처방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여성연구*, 120(1), 175-204.
- 유금란, 임승희(2020). 부모의 자기분화와 부부친밀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8(4) 561-581.
- 윤수란(2013). 한국 기혼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과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림(2016). 원가족 건강성, 성인애착, 부부의사소통능력과 결혼초기 부부 친밀감의 인과적 관련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이정은(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은희(2011).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과 심리적 부적응: 자기 통제력과 문제해결방식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8(12), 157-180.
- 이지민, 한혜림(2022). 성인애착과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Human Ecology Research*, 60(3), 459-470
- 이진숙(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관계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가정과 삶의질연구*, 22(3), 47-61.

- 이혜은, 정금희(2022). 부부갈등 회피 유형이 결혼안정성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피 불일치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소통학보, 21(1), 161-202.
- 정민정(2017). 기혼남녀의 원가족건강성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희(2011). 갈등적인 부부관계와 한부모가족, 어느 것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더 해로운가?. 사회복지연구, 42(4), 165-186.
- 정혜정, 조은경(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5(1) 19-46.
- 정혜정, 조은경(2009). 원가족 건강성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105-132.
- 천성문, 함경애, 황지인(2014).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인문학논총, 36, 381-405.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연화(2012). 상담학연구 대학생의 자아분화, 성인애착, 관계중독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3(2), 689-704.
- 최현미(1997). 원가족 척도 연구 : 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24). 2024 혼인·이혼 통계.
- 한영숙(2017). 부모의 이혼과 부부갈등이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커플관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 매개효과.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sser, A., Goetz, A. T., Shackelford, T. K.(2008). Personality, marital satisfaction, and probability of marital infidelity.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6(1), 13-25.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pp. 3 - 33). New York, NY: Gardner Press.
- Faezeh Baghaei, Majid Yousefi A.(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 family health, sensation seeking and resilience with marital commitment. Iran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4), 64-75.
- Ellen H. S., Jennifer F. M.(2000), Avoidance and attacking conflict-resolution strategies among married couples: Relations to depressive symptoms and mari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9(2), 201-206.
- Gavin, L. A., Wamboldt, F. S.(1992). A reconsideration of the family of 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 Family Therapy, 18(2), 179-188.
- Halford W.K. ,Kathy S.(2004). Repeating the errors of our parents? Parental Violence in men's family of origin and conflict management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6), 623-638.
-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P., Cochran, S. W., & Fine, M.(1985). A Family-of 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Husein, M. A. (2012). Marital happiness of married couples in the U.A.E society: A Sample from

Sharjah. Asian Social Science, 8(4), 217-224.

Ifert, D. E., Roloff, M. E.(2000). Conflict management through avoidance: Withholding complaints, suppressing arguments, and declaring topics taboo. In S. Petronio (Ed.), Balancing thesecrets of private disclosures, 151-163.

Kline, R. B.(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Guilford publications.

Larsen, A. S., McCubbin, H. J., Olson, D. H.(1982). F-COPES: Family Coping Strategies. In D. H. Olson, H. J. McCubbin, H. L. Barnes, A. S. Larsen, M. J. Muxen, & M. A.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Snyder, D. K.(1979).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S. Pirmoradi, N. Amini, M. Keykhosrovani, A. Shafiabadi(2023). Effectiveness of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on Marital Commitment and Marital Burnout among Couples with Marital Conflicts. Journal of Midwifery and Reproductive Health, 11(1), 3614-3622.

<Abstract>

**The Influences of the Family of Origin Health on Marital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Different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Style-**

Ju, Jeong-ran · Hong, Hey-Young

Incheon Metropolitan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the subfactors of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cluding rational coping, avoidance,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expression on relations between the family-of-origin health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en and women.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conducted a survey with 340 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thirties or forties around the nation. The survey used scales on family-of-origin health, marital satisfaction, self-different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styles.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28.0 and AMOS 28.0 programs in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ediating effect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family-of-origin health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marital satisfaction, self-differentiation. Self-differentiation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rational coping. Marital satisfaction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rational coping. Secondly, the study found that both self-differentiation and rational coping had mediating effects between family-of-origin health and marital satisfaction in Research Model 1(rational coping). In Research Model 2(avoidance), self-differentiation and avoidance had no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m. In Research Model 3(emotional and behavioral expression), self-differentiation had no mediating effects between family-of-origin health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expression had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m. Finally, the study tested the sequential dual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rational coping, avoidance,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expression on the impacts of family-of-origin health on marital satisfaction and found significant dual mediating effects in all of the paths. The research result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satisfaction affects the individual's conflict coping style, and that the way the couple handles conflict affects marital satisfaction.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help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relations between family-of-origin health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serve as data to improve couple relationships in counseling sessions and couple and parent education. Based on its findings, the study discussed its significance and proposals.

Key words : Family of Origin Health, Marital Satisfaction, Self Differentiation, Conflict Resolution Style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에 대한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단일 사례연구

손보경 · 선우현*

마음디자인 심리상담연구소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가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가족 기능 변화에 어떠한 경험이 되는지를 다중 자료로 탐색한 단일 사례연구이다. 경기도의 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6회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 회기별 가족 간 상호작용을 영상 촬영을 통해 자료 수집하여 관찰 및 분석하였으며, 부모-자녀 상호작용놀이 평가(MIM), 가족협동화, 가족집짓기, 가족 적응력 및 응집력 평가 척도(FACES III)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첫째,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는 다문화가정의 가족원 간 상호작용의 질과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둘째,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으로 대표되는 가족 기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는 다문화가정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 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부모의 역할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등 가족의 기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가족이 기능을 향상해 가는 과정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과 상호작용가족놀이 경험이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 가족 관계 전반이라는 체계적 수준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다문화가정, 가족 기능, 가족 간 상호작용

* 교신저자: 선우현(johann02@naver.com)

■게재 신청일 : 2025년 7월 8일 ■최종 수정일 : 2025년 8월 16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8월 17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자유화와 개방정책으로 해외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하여 많은 외국인과 해외 이주민들과 노동자들이 들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구구성, 경제, 사회 및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류경애, 2014). 특히 다문화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약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오만석, 2011; 우양호, 안미정(2016).

2024년 1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다문화가구의 전체 인구는 1,151,004명에 달하며, 이 중 한국인 배우자는 166,733명,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83,444명, 자녀는 295,696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중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는 91,92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들은 다문화가정도 우리 사회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주요한 축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건강한 개인 발달과 사회통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지 체계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개인적·환경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남은향, 2017). 이들은 실제로 언어적 차이, 문화적 차이, 생활 습관 등의 차이로 인해 결혼과 양육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취약성과 남편의 낮은 가사 및 양육 참여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정은화, 이성환, 2022; 박정자, 2015). 이에 대해 다문화가정 어머니 12명을 대상으로 한 오옥선과 김성봉의 연구에 따르면(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부모 역할의 혼란, 자녀 양육의 갈등, 부부간의 상호작용 부족, 남편의 지지 미흡, 자녀의 언어 및 학업 문제, 정체성 혼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는 더 나아가 가족 내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족 내 상호작용의 취약성은 가족 간 응집성과 적응력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애착 형성 및 양육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예지, 이순형, 2017; 박수원, 2003; 노남숙, 한유진, 2013). 또한 한서연(2011)은

가족 간 상호작용의 질이 부모의 양육효능감, 역할 만족감, 그리고 양육 행동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강현옥과 황혜원(2013)은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이 애착 형성과 양육효능감 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가족 간 상호작용의 질은 가족의 기능 즉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애착 형성, 양육 효능감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면으로 볼 때 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개인적·환경적 어려움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아동기는 신체적·인지적 발달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의 발달은 아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등 가정 내 환경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아동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사회적 규칙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학습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혜영, 김정희, 2017). 이러한 연유로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족 간 정서적 유대와 신뢰 형성이 어려우며 이는 가족 응집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동시에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으로 대표 되는 가족 기능은 저하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문화가정을 연구함에 있어 가족의 상호작용을 비롯한 가족 기능에 주목하려고 한다. 가족 기능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친밀성과 가족 체계의 안정성 및 유연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족이 발달적·환경적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조절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특히 Olson의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에 따르면, 가족기능은 가족 응집성(family cohesion)과 가족 적응성(family adaptability)의 두 축으로 설명된다(Barnes, Olson, 1985).

가족 응집성은 가족원 개개인이 가족 내 타 구성원과의 정서적 유대 및 상호작용의 밀접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가족원들 간의 감정적 결합의 정도로 가족 간 밀착의 정도를 의미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연결성과 독립성의 정도를 반영한다. 적절한 수준의 응집성을 지닌 가족은 친밀감과 자율성이 균형을 이루며, 구성원 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독립성과 관계성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반면 응집성이 낮은 가족은 정서적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기 쉬우며,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과잉 밀착과 자율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가족 적응성은 가족체계가 발달적 변화나 상황적 요구에 직면했을 때, 권력 구조, 역할 분담, 관계 양상 및 가족 규칙 등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가족이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으로 유연성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적응성이 적절한 가족은 예견되지 못한 위기 상황이나 발달적 전환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적응성이 낮은 가족은 규칙이 경직되어 있고, 역할 유연성의 부족으로 인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높은 적응성은 가족 체계의 불안정성과 일관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최광현, 2016; 홍예지, 이순형, 2017, 정지영, 2007). 이렇듯 가족의 바람직한 기능은 가족체계이론에 기반하여,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변화가 체계 전체의 기능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다(정은, 2009; Warden, 2007).

일반적으로 가정이 기능적인 경우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연결이 안정되며 일관된 양육 반응으로 자녀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는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나타난다. 가족 응집성이 적절한 경우 아동은 가족 안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돌봄을 경험하며, 이는 가족 간 신뢰와 정서적 안정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은 아동이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고 놀이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Ye et al., 2025; 황혜원, 2013). 가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때, 아동은 안전감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내 응집성이 취약하거나 적응성이 제한적인 경우, 아동은 정서 조절의 어려움과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연은모, 최효식, 2020). 이렇듯 가족기능은 아동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 기능은 정서적 안정과 또래 관계 형성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아동의 사회적 놀이 행동을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채호, 2024), 가족 개개인의 정서 경험과 정서 조절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 등 심리적 안정성에 유의하게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ersram et al., 2025). 게다가 가족의 기능은 단순한 애착 이상으로 섭식, 운동, 또래 관계 등 청소년의 생활행동과 정서 행동 조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ines et al., 2016). 이렇듯 가족 기능은 영유아는 물론이고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정서뿐 아니라 생활 행동, 대인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지영(2016)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응집력과 적응성 점수만으로도 건강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약 80%의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가족 관계의 질이 가족 전체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로 이해될 수 있다. 게다가 가족 내 의사소통의 질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변화에 대한 대응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안창현, 김진이, 2008; 박수원, 200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에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가족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이 겪는 다양한 양육 및 관계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에는 놀이 중심의 부모 역할 강화 프로그램과 가족 놀이치료 같은 개입이 주목받고 있다. 놀이는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유아기 아동에게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의 정서와 사고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이러한 놀이 표현은 치료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아동과 부모가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서와 경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안전한 관계 맥락 안에서 상호작용을 재구성하도록 돕는다. 특히 가족놀이치료에서는 놀이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류와 반응 양식을 명확히 드러내는 동시에, 새로운 상호작용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로 기능한다(Landreth, 2012; 김광웅, 유미숙, 2010).

선행연구를 보면, 가족놀이치료는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가족 내 유대감 향상에도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치료적 접근은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현옥, 황혜원, 2013; 민성혜 외, 2011). 더불어 가족놀이치료는 부모의 양육역량을 증진시키고 자녀에게 안정적인 정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가족 시스템의 기능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 부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에 그 의미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Eliana Gil, 2016).

특히 선우현(2010)이 제안한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기능적 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 형성 및 정서적 유대 강화에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놀이를 매개로 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반응을 인식하고 관계 속에서 역할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며,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

시키고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주효하다. 즉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는 가족 내 관계를 개선하고, 가족원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며, 가족의 기능을 발달 시키는데 효과적인 개입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선우현, 2013; 이인혜, 2022). 더욱이 놀이를 매개로 하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언어적 제한이 있는 다문화가정에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선행연구를 보면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가 위기가정 아동,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ADHD 성향 아동 가정, 목회자 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에 향상에 기여했다(김명애, 선우현, 2016; 남은향, 2017; 김다정, 2018; 선우현, 2021; 박재훈, 2023; 양기정, 2023). 그러나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선행 연구들은 보면 대부분이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가족 간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변화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 뿐 아니라 부부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부부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가족 전체의 정서적 안정과 기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가족기능의 회복을 위해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려고 한다. 이미령(2022)은 갈등과 단절을 겪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공간중심 가족놀이치료를 적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부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변화하고, 특히 부부간의 갈등과 회피가 놀이를 통해 정서적 거리감이 해소되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가 한 다문화가정 내에서 가족원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변화는 어떠한지, 그리고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경험을 통해 나타난 가족원 간의 응집성과 적응성에는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를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가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 할 수 있는 치료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관계적 맥락과 정서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이를 통해 가족놀이치료의 효과를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족원 간 상호작용의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경험을 통해 나타난 가족원 간의 응집성과 적응성(가족기능)의 변화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 및 특성

본 연구에 참여 대상자는 경기도의 U심리발달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에 개선을 원하는 가족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원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구 목적과 방법, 비밀 보장 등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안내한 후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 대상 가정의 부는 한국 국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며, 모는 필리핀 국적으로 따갈로그어와 영어를 주로 사용하며, 한국어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언어적 차이로 인해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부족한 상태로 보여졌으며, 50개월 유아 또한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눈맞춤과 같은 비언어적 상호작용도 자연스럽게 않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국적	직업	특성
부(47세)	한국	제조업	한국어를 사용하며, 2남 2녀 중 2남 다정하고 착한 편으로 결혼 후 아내에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하나, 아내와 대화는 거의 없음. 자녀와는 이른 출근과 늦은 퇴 근으로 대화시간이 부족하며, 가끔 엄할 때가 있다고 함.
모(41세)	필리핀	주부	따갈로그어, 영어 사용. 3남 3녀 중 2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놀이치료 후 부모 면담 시 연구자와 눈맞춤 인사만 함. 이후 한국어가 가능한 동향 친구(필리핀)의 협조로 상담이 시작되었으며, 의사 소통에 매우 제한적인 것과 가족 간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파악 할 수 있었음.

자녀 (남아/50개월)	한국		눈맞춤이 적고 언어발달이 느린 편이며, 놀이하며 치료실 놀잇감을 잘 꺼내지 않음.
-----------------	----	--	---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경험이 가족 기능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다중 자료로 탐색한 단일 사례 연구로, 연구자는 우선 질적 연구 단일 사례 분석을 위해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가족 내 역동을 파악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간의 가족놀이 과정을 녹화와 기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를 활용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을 평가하여 질적 분석 내용을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확보하였다. 이와함께,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입 전과 후에 MIM(Marschak Interaction Method)을 적용하여 놀이 상황 속 상호작용의 질적 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 평가하였다. 또한 가족놀이치료 과정에서는 가족놀이 평가 도구인 ‘가족협동화’와 ‘가족집짓기’를 통해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가. 가족 적응력 및 응집력 평가 척도(FACES 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가족 적응력 및 응집력 평가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FACES III)는 가족의 기능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Olson, Portner, 그리고 Lavee가 1985년에 제작한 자기보고식 도구이다. 이 척도는 가족의 응집성(cohesion)과 적응성(adaptability)이라는 두 가지 핵심 차원을 중심으로 가족의 역동을 측정한다(박수원, 2003).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의 정도를 측정하며, 적응성은 가족이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지를 평가한다. Olson은 이 두 차원을 기준으로 가족을 네 가지 응집성 유형인 단절형, 분리형, 연결형, 밀착형과 네 가지 적응성 유형으로 경직형, 구조형, 융통형, 강한 융통형으로 분류하여 가족을 설명한다. 이 검사 도구는 가족치료 및 가족 관련 연구에서 가족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다(최광현, 2016; 백보라, 2021).

나. 부모-자녀 상호작용놀이평가(MIM:Marschak Interaction Method)

부모-자녀 상호작용놀이평가(MIM:Marschak Interaction Method)은 Marianne Marschak에 의해 개발된 진단 도구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질과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 도구이다. MIM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놀이를 통해 관찰하고 평가하는 구조화된 심리검사로, 부모와 자녀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적 연결, 애착, 소통 방식 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이 도구의 활동 과제는 구조(structure), 개입(challenge), 양육(nurture), 도전(engagement)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과 상호작용 패턴, 자녀의 정서·사회성 발달 상태, 양육 태도, 애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MIM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개입 전후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가족 내 관계의 변화와 상호작용 변화에 대해 깊이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간 상호작용의 변화를 MIM 구조의 틀로 바라보아 가족 내 상호작용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색했다.

다. 가족협동화, 가족 집짓기

가족협동화는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활동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비롯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족 대상의 평가 도구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상호작용 방식, 정서적 거리감, 협력 수준, 갈등 양상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가족의 관계 역동을 전반적이고도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가족 집짓기는 가족구성원이 블록을 사용해 서로 상의하여 집을 만드는 구조화된 놀이 과제로, 의사소통 방식, 협력의 수준, 역할 분담, 갈등 해결 전략, 정서적 연결 등 가족 내 상호작용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 이 활동은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협력적 행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며, 치료적 개입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이인혜, 선우현, 2022; 김광웅, 유미숙, 유재령, 2004).

3. 자료 수집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U심리발달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으며, 2024년 10월 한 달간 연구 참여자 모집 공지를 통해 대상 가족을 모집하였다. 연구에 선정된 가족에게 2024년 11월 10일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한 후 연구 참여 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사전 검사와 평가로 11월 17일에 FACESIII 척도지 검사와 MIM 질적 평가를 관찰과 영상 녹화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11월 24일부터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를 실시하였다. 척도 검사 시 모는 필리핀 사람으로 인해 척도지를 파파고를 활용하였으며, FACESIII의 경우 파파고에 이미지를 찍으면 바로 선택 언어로 변환되어 자료가 제시되는 것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MIM의 경우는 그렇게 파파고로 번역한 것을 연구자가 카드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즉 MIM 제시 카드는 부 대상의 한국어 버전과 모 대상의 영어 버전으로 두 벌을 준비하여 실시하였다. 치료 시작 전 가족놀이평가로 가족협동화와 가족집 짓기를 실시했으며, 이후 대상 가족을 중심으로 총 6회기의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를 진행하였다. 사후 검사는 2025년 2월에 실시했다. 가족놀이 평가까지 모든 사전 평가 실시 후 MIM 검사 해석 상담과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아동 주도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부모가 활용할 아동중심놀이 기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또한, 각 매회기 프로그램 진행 전, 후로 부모교육 또는 부모 상담을 필요에 따라 실시하였다.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는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하여 총 8회기로 구성하였으며, 주 1회 80분간 진행되었다. 각 회기는 가족놀이치료 60분,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 30분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연구 기간은 2024년 12월 1일~2025년 2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4. 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가족 간 상호작용의 변화를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함께 분석하였다. 가족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FACESIII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 적응력과 응집력을 알아보고, 이를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근거로는 Olson의 Circumplex 모델에 근거하여 가족기능을 분석하여 16가지의 가족체계 유형으로 구분하며, 이를 바탕으로 ‘역기능’, ‘기능 저하’, ‘기능’으로 분석하였다(최광현, 2016). 이에 더해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보기 위해 MIM을 중심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영상 자료를 반복 검토하여,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MIM 과제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의 특징과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 놀이평가로 가족협동화와 가족 집짓기를 활동에 대한 관찰과 활동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 간 상호작용 수준, 정서적 거리감 등 가족의 상호작용 양상을 자료 분석, 질적 분석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와 모든 회기를 관찰 기록과 영상 녹화하였으며, 반복적 검토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동료 검토 및 전문가 자문 그리고 수퍼비전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5.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의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선우현(2013)의 연구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였다.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는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데, 신체놀이는 가족 간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놀이를 통해 가족 간의 친밀감과 정서적 접촉 증진이 되며, 구조화 놀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안전하고 신뢰로운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자녀가 주도하는 자유놀이로 이를 통해 아동은 부모에게 수용받고 지지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다음과 같은 목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첫째, 신체놀이를 통해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과 정서적 접촉이 이루어지며 친밀감이 향상되고 애착 형성을 촉진한다. 둘째, 구조화 놀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자녀는 부모를 신뢰롭게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자유놀이에서는 아동이 주도하는 놀이를 부모가 공감하고 반영하며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며, 자녀가 자신 있게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 참여 가족은 다문화가정으로 언어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대화가 부재하고 친밀감이 낮으며, 이러한 것이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신체놀이 뿐 아니라 구조화 놀이에서도 정서적 연결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2>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회기별 개입 프로그램

사전 검사	FACESIII, MIM	
가족놀이 사전 평가	가족협동화 가족 집짓기	일상 속에서 가족이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가족간 상호작용의 특성과 의사소통 양상을 평가합니다.
	부모 교육	MIM 해석 상담 및 아동중심놀이 교육
1회기	신체놀이: 로션 맛사지 구조화 놀이: 가족 손 꾸미기 자녀가 원하는 자유놀이	가족의 손을 꾸미면서 상호 간에 소중함을 느끼면서 정서적 친화력을 향상합니다.
	부모 교육 및 상담	
2회기	신체놀이: 사탕찾기 구조화 놀이: 휴지로 미이라 만들기 자녀가 원하는 자유놀이	신체접촉을 하며 자연스럽게 즐거운 놀이 속에서 친밀감이 향상됩니다.
	부모 교육 및 상담	
3회기	신체놀이: 가족 얼굴 그리기 구조화 놀이: 휴지 공 만들기 놀이 자녀가 원하는 자유놀이	가족 간 신체접촉을 늘리고, 얼굴을 꾸미기 활동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애착을 증진합니다.
	부모 교육 및 상담	
4회기	신체놀이: 요람 태우기, 뗏목 타기 구조화 놀이: 가족 안마하기, 간식 나누어 먹기 자녀가 원하는 자유놀이	감각 접촉 경험을 하며, 가족 간 공감과 돌봄 경험을 합니다.
	부모 교육 및 상담	
5회기	신체놀이: 등에 그림 그리기 구조화 놀이: 밴드 붙이기 자녀가 원하는 자유놀이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상호 양육의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합니다.
	부모 교육 및 상담	
6회기	신체놀이: 신문지 찢기 놀이 구조화 놀이: 아동의 신체화 그리기 자녀가 원하는 자유놀이	가족이 함께 신체 활동을 하며 즐거움과 재미를 느낍니다.
	부모 교육 및 상담	
가족놀이 사후평가	가족 협동화 가족 집짓기	프로그램 개입 후 평가합니다.
사후 검사	FACESIII, MIM,	

III. 연구 결과

1.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질적인 변화과정

가.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의 회기별 변화과정

프로그램 개입 전-후에 평가 회기 외에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는 전체 6회기로 진행되었다. 가족이 보여준 변화를 중심으로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각 회기에서 가족놀이를 통해 나타난 가족 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회기별 내용을 관찰한 세 개의 주제는 가족 간 관계 형성의 시작, 친밀감 형성과 가족 간 의사소통의 확장, 그리고 돌봄 경험 그리고 가족 적응성과 안정감 형성이다.

(1) 가족 간 관계 형성의 시작

ㄱ. 1회기 : 로션 맛사지, 가족 손 꾸미기, 자유놀이

(ㄱ) 신체놀이 - 소극적이고 긴장된 상호작용의 시작

연구 참여자 가정은 전반적으로 소심하고 소극적이면서 긴장하는 편으로, 첫 회기에는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지시수행은 하였으나 자발적인 행동은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티슈로 가족의 손을 닦아 주세요”라는 안내에 행동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나 부는 무릎 꿇고 경직된 모습으로 앉아서 무표정하게 손을 닦아 주어 행동의 유연성과 감정의 교류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연구자는 “자연스레 말을 건네셔도 좋습니다”라는 말로 가족의 놀이 활동을 촉진하였다. 이에 부부는 멧쩍게 웃으며 손을 닦아 주기만 할 뿐 눈맞춤은 거의 없었다. 가족원 개개인이 소극적이고, 관계에서 경직되어 있으며 자발성이 낮음도 시사한다. 또한 정서적인 거리감과 정서적 개방성이 제한적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의 개입이 많았다.

(ㄴ) 구조화 놀이 - 어색하지만 격려의 시작

아동은 부모가 자신의 손에 주의를 기울이고 도화지에 손을 대고 본뜨기를 하는 것을 보고 느끼며 흥미있어 하였다. 특히 아동이 부의 손을 본뜨기 할 때는 서툰 움직임으로 실제보다 크게 그려짐에도 부모는 아동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격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 또한 옆에서 이를 바라보며 “그치, 그치”라며 서툰 한국말이지만 아동을 응원하며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부모가 아동의 표현을 존중하고 지지함을 보여주며,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상호 수용

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때도 부부의 눈맞춤이나 의사교환 모습은 거의 없었다.

(ㄷ) 자유놀이 - 아동의 놀이에 주의 기울이기 시작

아동의 공룡 인형을 사용한 자유놀이에서 부는 아동의 놀이에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했다. 아동은 여러 마리의 목도리 공룡과 작은 공룡으로 상상놀이를 하였으며, 부는 이 놀이에 함께 하며, “똑같은 공룡이 있네”, “공룡들이 많이 있네”라는 정도의 놀이 묘사를 하여 부가 아동의 놀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언어발달이 늦은 아동의 의성어 표현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행동묘사와 언어반영이 빈약하였다. 긍정적인 것은 MIM 사전 평가에서 나타났던 부가 주도하여 공룡 인형 싸움 놀이와 비교했던 것에서 이제는 아동의 놀이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감이 나타났다. 이는 부가 아동 주도 놀이를 인식하고, 그 흐름에 맞춰 반응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ㄴ. 2회기 : 사탕찾기, 휴지로 미이라 만들기, 자유놀이

(ㄱ) 신체놀이 - 즐겁지만 아직은 경직된 상호작용

아동의 몸에 사탕을 부모가 아동의 몸을 더듬어 만지며 찾았다. 아동의 몸에 옷을 걷어 보기도 하고, 팔과 다리를 쓰다듬고 만져가며 사탕을 찾는다. 아동은 간지러워 깔깔거리고 웃고, 부와 모도 함께 웃으며 아동의 몸에 있는 사탕을 찾았다. 그러나 부는 지난주 관찰과 동일하게 무릎을 꿇은 상태이며, 모 역시 그 옆에서 사탕을 찾는 활동을 함께 했다. 부모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경직된 태도를 보였으며, 부부가 눈을 맞춘다거나 언어적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 모두 웃음을 보이며 즐거워 했다. 이후에는 모의 몸에 사탕을 숨기고 부와 아동이 이를 찾는 활동으로 놀이가 확장하였다. 아동이 사탕을 찾을 때마다 부모는 환호를 하며 아동의 성공을 격려하였다. 비언어적, 언어적 의사소통은 제한적이었지만, 사탕찾기 놀이를 통해 신체 접촉을 하며,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가족 간 의사소통을 비롯한 정서적 교류는 부족하였지만, 가족놀이 활동을 통해 긍정적 상호작용이 시작되며, 상호 간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가족 간 응집력의 시작이다.

(ㄴ) 구조화 놀이 - 부모의 모델링 시범으로 자녀의 놀이 참여 동기 향상

‘휴지로 미이라 만들기’에서 아동은 자신의 몸에 휴지를 감는 것이 불편한지 자신에게 말려진 휴지를 끊어 내었다. 이후 부가 모에게 휴지를 감으며 ‘미이라 만들기’를 하자, 아동은 그 모습이 신기한지 관심을 보였다. 아동은 모의 모습을 모델링하여 자신의 몸을 빙글빙글 돌렸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부와 모는 즉각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휴지로 미이라 만들기를 할 수 있었다. 아동의 깔깔거리는 웃음을 시작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신나고 즐거운 휴지로 미이라 만들기 놀이가 되었다. 아동의 자발적 모델링 행동에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놀이를 확장하였으며, 놀이를 유연하게 변형시켜 아동의 참여 동기를 올리는 등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ㄷ) 자유놀이 - 모의 놀이 이해를 돕기 위해 나선 부

자유놀이에서는 모가 아동과 놀이를 하였다. 연구자의 안내를 모가 알아듣지 못하자 부가 아내에게 “00이가 하는 말과 행동 따라해”라며, 아동주도 놀이를 안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부부간에 정서적 유대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부가 자신이 인지한 것을 아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해 말해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렇듯 놀이 초기에 부모가 무릎을 꿇은 채 연구자의 지시를 수행하는 긴장되고 경직되었던 수준에서 발전하여 점차 정서적·행동적 유연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 관찰되었으며, 부부가 놀이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부부 간의 기능적인 상호작용이 시작됨이 드러났다.

(2) 친밀감 형성과 가족 간 의사소통의 확장

ㄷ. 3회기 : 가족 얼굴 그리기, 휴지 공 만들기, 자녀가 원하는 자유놀이

(ㄱ) 신체놀이 - 가족 간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밀착된 신체접촉

OHP 필름에 가족의 얼굴 대고 그리기이다. 먼저 부의 얼굴을 그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가정의 중심으로서 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문화가정에

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아내를 배려하고, 아동의 언어발달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다. 모가 부에게 가까이 가서 얼굴에 대고 펜으로 그림을 그리며, “아빠 눈, 아빠 코”라고 하며 그림을 그려, 아동의 흥미를 유도하였으며, 언어 축진을 하였다. 아동은 이에 흥미를 느끼고 아빠 얼굴로 다가가 아빠의 얼굴 형태, 입 등을 그렸다. 이어서 바로 아동의 얼굴 그리기를 하여 아동의 흥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와 모가 모두 아동의 얼굴에 가까이 가서 아동의 얼굴을 그렸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동의 얼굴을 그리면서 가족원들은 모두 매우 흡족해 하였다. 이렇게 가족의 얼굴을 모두 그렸으며, 가족 구성원 간의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밀착된 신체접촉 그리고 얼굴을 그리면서의 즐거움까지 가족 간에 친밀감의 형성으로 응집성이 향상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ㄴ) 구조화 놀이 - 적극적 의사소통으로 부부의 협력이 나타남

‘휴지로 공만들기’를 하며 부모가 놀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는 휴지로 공만들기를 아동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모델링 해 주었으며, 부모가 만든 팔골대에 아동이 공을 던져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부와 모가 협력하여 아동의 주의를 끌고 부가 만든 골대에 모가 휴지 공을 집어 넣으며, 아동이 흥미를 느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시도했다. 아동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당신이 골대, 내가 던질게”, “이번에는 내가”라며 부부간에 언어적 의사소통과 몸짓을 활용한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하며 부부의 협력이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놀이 참여에 부와 모가 번갈아 가며 골대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동이 공 던지는 것을 도우며 놀이에 열심히 몰입하였다. 골대 역할을 하는 부모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수행 능력이 저조한 아동에게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연구자가 개입하여 “아동이 공을 던지는 쪽으로 몸을 움직여 받아주어도 좋아요”라며 놀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렇게 하여 아동이 골대에 휴지 공을 넣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놀이를 촉진하여 아동의 성공경험을 늘려 갈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했다. 휴지 공 놀이는 자연스럽게 휴지 공을 눈으로 활용한 눈싸움 놀이로 전환되었으며, 이후에는 휴지 날리기 놀이로 자연스러운 확장이 일어났다. 정서 이완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가족이 하나 되어 놀이하며 가족의 응집성이 더욱 향상되어 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ㄷ) 자유놀이 - 주의를 기울여 관심 보이며 정서적으로 연결됨

자유놀이에서는 아동은 병원놀이를 선택하였으며, 이번 회기에서는 부와 모가 함께 했다. 아동이 딸이 인형을 병원 침대에 눕히자 모는 청진기로 딸이를 진찰하며 아동의 병원놀이를 확장하였으며, 아동이 이를 신기하듯이 바라보자 모는 아동에게 청진기를 대어 진찰하며 아동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놀이를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부 또한 아동의 놀이를 언어로 행동 묘사하며 놀이에 함께 했다. 부와 모는 아동의 흥미를 유지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였으며, 모와 아동이 협력적으로 놀이를 이어가는 과정은 긍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보여 주었으며, 놀이를 통해 형성된 정서적 연결은 가족의 응집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다만, 놀이 중 언어적 축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아동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남으며, 향후 놀이 개입 시 언어적 상호작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ㄹ. 4회기 : 요람 태우기, 안마하기, 간식 나누어 먹기, 자녀가 원하는 자유놀이

(ㄱ) 신체놀이 - 비언어적·언어적 의사소통 확장 그리고 친밀감 형성

부모는 넓은 모포를 바닥에 깔고 아동이 모포 안쪽으로 들어가 눕도록 하고, 모포의 양쪽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 요람을 태워주었다. 부부가 왼쪽부터 하자는 등의 말은 없었지만, 비언어적 메시지로 서로 호흡을 맞춰 요람 태워주기를 하였다. 서로의 몸의 언어를 알아차리고 상호 조율하며 놀이를 한 것이다. 이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민감성이 향상되어 가는 신호로 볼 수 있으며, 점차 더욱 응집되어 감으로 볼 수 있겠다. 잠시 쉬었다가 한 번의 놀이를 더 반복하였으며, 이 또한 비언어적 메시지로 쉬는 타이밍을 맞춰 멈추었고, 이후에는 부가 “한 번 더 하자”며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며 모포를 들어 주도하였으며, 아내도 모포의 한쪽 끝을 잡아 들고 요람 태워주기를 한 차례 더 진행하였다. 이 활동을 하며 부부간에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발생하였으며, 부부가 협력하여 아동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아동은 부모가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운데 환대받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에 아동은 부모에게 친밀감이 더욱 끈끈하게 형성되었다. 더욱이 부부가 호흡을 맞춰 비언어적으로 상호 조율하며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을 향상되었다.

(ㄴ) 구조화 놀이 - 부의 리더로 가족 구조 세우기

많이 흥분되어 있는 아동을 안마하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진정이 되어 가도록 하였는데, 이는 구조화 놀이로 진행하여 부모가 놀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는 아동에게 언어 촉진도 하며 아동의 팔과 다리 등도 주물러 주었고, 이어 아동에게 모를 안마하도록 하고 자신도 아내를 안마해 주고, 이어서 모가 “아빠 안마해 주자”라며, 아동과 함께 아빠에게 안마해 주기를 시행하였다. 가족놀이치료 전반에 걸쳐 아동이 중심에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부모가 자연스럽게 아동이 부모에게 안마할 수 있도록 안내했던 것 같다. 이어 진행된 간식 나누어 먹기 활동은 연구 참여자 가정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여 부모가 아동에게 간식을 먹게 하고, 아동이 부모에게 간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이 활동에서 언어 촉진이 매우 왕성하게 있었으며, “00이 간식 먹자”에서 시작해, “아빠에게도 간식 드려요.” “엄마에게도 간식 주세요”라고 하며, 간식 나누어 먹는 활동을 하였다. 아동은 부모의 지시에 따라 아빠와 엄마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었다. 구조화 놀이를 통해 부모가 아동에게 지시하며 이를 아동이 잘 따르자 흡족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아동이 관심 있어 하는 것으로 지시 수행하여 부모의 양육에서의 성공 경험도 향상되었다.

(ㄷ) 자유놀이 - 안정감 속에 즐거운 놀이 몰입

자유놀이로는 아동이 퍼즐맞추기 놀이를 선택하여 모는 아동이 퍼즐 맞추기가 쉽도록 퍼즐 조각을 집어 아동에게 주기도 하고, 부는 아동과 함께 퍼즐 맞추며 아동의 퍼즐 맞추기에 보조를 맞추었다. 즉, 아동보다 먼저 빠르게 맞추기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아동이 맞추는 것을 보며 자신도 퍼즐 맞추기를 하였다. 부와 모는 아동이 퍼즐을 맞추었을 때, “00이 퍼즐 잘 맞추네”, “그렇지, 잘하네”라며 아동을 격려했다. 퍼즐 두 세트를 맞출 정도로 아동은 놀이에 몰입하여 집중하였고, 모는 퍼즐 맞추기 동안 콧노래를 부르는 등 편안하고 즐거운 모습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모습이 매우 안정적이고 단란해 보였다. 이렇듯 가족은 신체 접촉 경험이 쌓이며 친밀감과 더불어 신뢰를 형성해 갔으며,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활용해 부부가 협력하고 조율하는 등 의사소통 능력이 확장 되어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점차 유연하게 놀이를 확장하고 전환해 가는 경험을 통해 문제에 대한 적응적 능력도 향상되어감이 드러났다.

(3) 돌봄 경험, 정서적 연결 그리고 안정감

ㄱ. 5회기 : 손에 그림 그리기, 밴드 붙이기, 자녀가 원하는 자유놀이

(ㄱ) 신체놀이 - 의사소통의 향상 그리고 상호 협력하기

‘손에 그림 그리기’는 활동으로 부가 아동의 손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고, 또한 아동의 손에 그림을 그리며 그 감촉을 서로가 느껴보았다. 부는 해님이나 스마일 등의 모양을 그려 아동에게 “이게 뭘까?”라며 맞추도록 하기도 하고, 아동의 이름을 쓰고 언어로 표현도 해가며 다양하게 손에 그림 그리는 놀이를 변형하여 진행하였다. 아동은 손바닥의 느낌을 느끼며 “까르르” 웃기도 하고, 간지러워 피하려고 하는 것을 손을 꼭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며 그림을 완성하기도 하였다. 부가 그림을 그리면 모가 아동의 손을 잡아주고, 모가 그림을 그리면 부가 아동의 손을 잡고 있는 등 상호작용하며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고 할 정도로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부부간에 상호작용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상호 협력하는 모습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경직되고 긴장되었던 모습에서 놀이를 변형하기도 하는 등 매우 자연스러워지고 유연하게 놀이했다.

(ㄴ) 구조화 놀이 - 서로의 상처를 돌보며 정서적으로 연결하기

구조화 놀이로 ‘밴드 붙이기’를 하며, 부와 모는 아동의 소매를 들추고 바지를 걷어 아동이 아픈 곳을 찾았다. 아동 손의 아픈 곳을 찾아 모가 아동에게 밴드를 붙여주며, “호~” 했다. 이어서 모는 남편의 바지를 걷어 아픈 곳을 보여 주었다. 아동은 아빠의 상처를 보고 속상한 듯 얼굴을 찌뿌렸다. “아빠, 피 났겠다”라고 모가 말하고, 아동은 밴드를 떼어서 아빠의 아픈 상처에 정성껏 붙이며, “호~”하고 붙였다. 이에 아빠는 “고마워”라고 말하니, 아동은 이 말을 듣고 활짝 웃었다. 아빠는 이 모습에 감동하여 아동을 안아주고, 아동도 아빠를 힘껏 안았다. 그리고 잠시 후 아동은 모도 안아주었다. 그저 그냥 감동의 장면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돌보며 신체적 접촉을 통해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이 되었으며, 늘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것에서 아동이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하며, ‘나도 엄마, 아빠를 도울 수 있어’라는 자부심과 함께 자율성과 책임감도 경험하게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가 아동의 속도에 맞추어 기다

려 주고, 도우려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으로 아동에게는 안정감과 신뢰감이 형성되었음은 물론이고 아이의 조절 능력 또한 향상되어 간다. 또한 아동은 부의 상처를 보며 매우 속상한 표정을 지으며, 아빠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 또한 아동과 깊은 정서적 접촉이 이루어짐이 경험되는 회기였다.

(ㄷ) 자유놀이 -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율하기

아동은 이번 회기에는 자유놀이로 개구리 숫자 놀이를 가져왔다. 아동은 놀이 의자에 개구리를 일렬로 세우고 한 마리씩 이동시키기도 하고, 의자 위로 올라가고 내리기도 하며 상상놀이를 하였다. 모는 아동의 놀이에 함께 하며 “00이가 개구리가 의자 위로 올랐네”라고 행동을 묘사하고, 아동이 개구리를 줄지어 가게하고, 높이 떠서 통통 떨어 때는 “점프, 점프”하며 함께 놀이에 상호작용하는 등 모와 아동이 조화를 이루며 놀이하였다. 이제 모는 아동 주도 놀이를 이해하고, 서툰 언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여 짧게라도 표현하며, 아동의 놀이를 함께 했다. 모는 아동의 감정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율해 나가는 것이 한결 자연스러워짐이 관찰되었으며, 모의 한국어 실력도 점차로 많이 향상되어 갔다.

ㄴ. 6회기 : 신문지 찢기 놀이, 신체화 그리기, 자녀가 원하는 자유놀이

(ㄱ) 신체놀이 - 놀이를 구조화하여 제공하기

부모가 신문지를 양쪽으로 들고 아동이 신문지를 쳐서 신문지를 찢을 수 있도록 했다. 아동은 신문지가 찢어지는 소리에 더 신이나서 놀이에 몰입했다. 아동에게도 신문지를 잡을 기회를 주어, 부와 아동이 신문지를 잡고 모가 신문지를 쳐서 찢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놀이 초기에 놀이 형식에 매여 긴장되고 경직되었던 모습에서 점차 유연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며 놀이에 참여하여 몰입하고 즐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신문지를 퍽 퍽 쳐서 찢기 놀이를 한 후에는 양 손으로 신문지를 길게 찢는 놀이도 하였다. “00아, 이렇게 해”라고 보여주고, 아동의 손으로 신문지를 찢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며 신문지 찢기 활동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놀이에 임했다. 찢어진 신문지를 아동의 머리 위로 날려 마치 하늘에서 눈이 오는 듯하게 하였으며, 신나게

놀이했다. 자연스러움을 배가되고 탄력적으로 놀이를 운용하며 상황에 적응해 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ㄴ) 구조화 놀이 - 안정감을 공유하며 정서적 연결하기

구조화 놀이로는 ‘신체화 그리기’는 놀이실 바닥에 전지를 펼쳐 아동이 그 위에 눕게 하여 아동의 몸을 부모가 크레파스로 대고 그렸다. 부와 모는 한 사람을 종이를 펼치고, 한 사람은 아동을 눕게 하는 등 이제는 부부가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을 하고, 협력적 상호작용하며 아동을 그렸다. 신체 본뜨기를 마친 후 아동은 그것이 재미있었는지 전지의 한 쪽에 자신의 손을 대고 그리기도 하며 자율적인 모습을 보였다. 가족원은 모두 채색도구를 활용하여 그림 꾸미기를 하였다. 부와 모는 아동이 현재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하게 아동을 꾸몄다. 아동도 자신의 바지를 색칠하고, 부모가 아동의 얼굴을 꾸밀 때는 자신의 눈과 눈썹을 그리기도 했다. 부부는 비언어적 소통을 하며, 그림을 완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서적 유대감도 형성되었다. 부모가 함께 아동의 신체를 대고 그리는 것은 아동의 존재를 인식하며 존중하는 상징적 표현이 되며, 이는 아동의 안정 애착으로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 그림을 함께 꾸미는 공동 작업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 가며, 가족원 모두가 정서적으로 연결되며, 서로 응집력 있게 결속되며, 가족이 함께 하는 경험이 되며, 아동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전달된다.

이렇듯 가족 개개인이나 관계 가운데 경직되고 긴장되어 있으며,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던 것에서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회기를 거치며 신체 접촉 놀이를 통해 점차 안정되어 가고 가족 간 연결감으로 친밀감이 형성되고 신뢰가 쌓이며, 가족이 상호 협력하며 가족 간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여지고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놀이에 몰입하며 자연스러운 놀이의 확장과 전환 경험을 하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모습들이 향상 되어져 갔다.

나. 부모-자녀 상호작용놀이평가(MIM)로 본 가족 변화 과정

부모-자녀 상호작용놀이평가(MIM)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과 특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진단 도구로, 활동 과제는 구조, 개입, 양육, 도전의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변화 과정을 MIM의 4개의 구조를 통해 살펴보았으

며, 이를 통해 부모-자녀 간의 관계의 질과 특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4개의 활동 과제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가족 간 관계를 면밀 이해하기 위해 부-자녀, 모-자녀로 실시하였다. 또한 모는 필리핀 사람으로 인해 수행 과제를 파파고를 이용해 번역하여 영어로 제시하였다.

수행 과제와 영역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MIM 영역별 검사 문항

번호	카드 내용		구분
과제 1	부	부모와 아동은 각각 한 마리의 동물을 갖습니다. 두 마리의 동물이 함께 놀아요.	개입
	모	Parents and children each have one animal. Two animals play together.	
과제 2	부	부모와 아동은 각각 종이와 연필을 집는다. 부모는 그림을 재빠르게 그리고, 아동에게 모사해서 그리도록 격려한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스마일 등	구조와 도전
	모	Parents and children each pick up paper and pencils. Parents are quick to draw pictures and encourage children	
과제 3	부	부모는 아동에게 “네가 어린 아기였을 때”로 시작하여 아동이 어렸을 때에 대해 이야기 한다.	양육
	모	Parents brush their children's hair.	
과제 4	부	모두에게 친숙한 게임을 하세요.	개입
	모	Play that everyone is familiar with.	
과제 5	부	부모와 아동은 각각 로션병을 한 개씩 갖는다. 서로에게 로션을 발라 주세요.	양육
	모	Parents and children each have one lotion bottle. Put lotion on each other.	
과제 6	부	부모는 블록 한 세트를 가지고, 다른 세트는 아동에게 주라. 부모 자신이 갖고 있는 블록으로 블록 구조물을 만든다. 그리고 아동에게 “네 블록으로 내가 만든 것과 똑같이 만들어라”고 아동에게 지시한다.	구조와 도전
	모	Parents teach children something they don't know.	
과제 7	부	부모는 아동을 남겨두고 1분 동안 방은 떠난다.	양육
	모	Parents leave the room for a minute, leaving their children behind.	
과제 8	부	부모와 아동은 서로 먹여 준다.	양육
	모	Parents and children feed each other.	

(1) 구조 영역에서의 상호작용 변화

구조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환경을 구조화하는 부모의 역할 영역을 관찰한다. 양육자의 이와 같은 역할 수행으로 인해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안전감을 느낄 수 있다. 구조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는 “넌 나와 함께 함으로 안전해”이다. 구조화에서는 부모가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절하고 명확한 구조화를 제공하는가와, 아동은 성인의 구조를 받아들이는가가 평가 기준이 된다.

사전 평가에서 부와 모는 아동의 흥미를 유도하려는 시도는 보였으나, 발달 수준에 적절한 구조화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특히 부는 아동이 자신의 그림을 따라 그리지 않고, 점찍기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도형 그리기 활동을 고수하며 “아빠 따라 그리자”라는 표현을 반복하였고, 아동이 따르지 않자 “그림 그리기 싫어?”라고 질문한 후 활동을 종료하였다. 모는 아동이 놀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아동이 선호하는 주제를 활용하여 흥미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블록 쌓기 놀이에 아동을 초대하는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과제 수행 과정에서 모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조작이나 모방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화된 지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아동은 블록 쌓기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는 모가 아동의 흥미를 기반으로 놀이 참여를 유도하는 감각적 민감성은 보였으나, 이를 교육적이고 학습적으로 확장하는 상호작용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개입 이후에는 부모의 놀이 구조화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부는 아동의 자발적인 블록 세우기 활동에 관심을 갖고 관찰 한 후 아동의 흥미 요소인 슈퍼마리오 게임을 창의적으로 연계하여 인형을 활용한 상상놀이를 제시하였다. 이것이 아동의 흥미와 반응을 유도하며 상호작용적인 놀이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부가 아동의 관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흥미 기반의 활동을 하며 구조화된 놀이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개발되었음을 보여준다. 모의 경우는 블록 쌓기 활동을 직접 수행하며 아동에게 모델링을 제공하고, 아동 또한 이를 관찰한 뒤 유사하게 따라하며 참여하였다. 이후 그림 그리기 활동에서는 “분홍색?”, “노란색?” 등의 언어를 사용하여 아동의 흥미를 유도하고, 도화지에 사람 얼굴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 눈”, “○○이 코”라고 아동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유지시키는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이렇듯 부모는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개입 전에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나 구조화된 활동 안내가 부족하였으나, 점차 아동의 자율적

행동을 수용하고 놀이의 방향을 조율함으로써 아동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구조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개입 영역에서의 상호작용 변화

개입에서는 부모가 아동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부모의 능력을 통해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개입에서 부모의 메시지는 “난 너와 함께 있어 좋아. 넌 참 즐거운 상대야. 넌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어”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사전 평가에서 부와 모는 아동과 즐거운 놀이 경험 제공에 제한점을 보였다. 특히 부는 아동의 흥미를 반영하지 않은 채 두 동물 간의 추격 이야기를 구성하여 일방향적 놀이를 하였다. 이에 아동은 놀이에 흥미를 잃고 독자적인 놀이로 전환하였으며, 부에게서 신체적·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모는 아동과의 놀이 상황에서 아동의 주의를 유도하기 위해 “아, 이거 예쁘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아동의 놀잇감에 관심을 보이고, 이를 자신의 앞으로 가져와 아동이 함께 놀이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놀이 중 반복적으로 “이거 뭐야?”라는 질문을 하여, 놀이 흐름이 단절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아동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고, 교수적 상호작용을 하려는 시도로 이해되나, 놀이 중심의 상호작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고려된다.

그러나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개입 이후에는 부모의 놀이 개입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부는 아동에게 미소와 눈맞춤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며 공동주의(joint attention)를 시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당나귀가 하마 보러 왔네”라며 상징적 언어 표현을 하고, 동물 소리 모방 등으로 놀이적 요소를 가미하여, 아동의 정서적 반응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놀이를 조율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렇듯 아동의 행동을 언어적으로 반영하여 관심을 표현한 후 놀이 맥락으로 자연스럽게 재초대함으로써 아동의 자발성과 놀이 흐름을 존중하였다. 이전 평가에서의 일방향적 이야기 구성과 아동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상호작용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동과 조율하며 놀이를 통한 정서적 유대 형성 및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능력이 발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더해 모는 지속적으로 아동을 주시하고 아동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의 놀이를 전개함으로써, 아동과의 공동 놀이를 했다. 놀이 중 “이게 뭐야?”라는 질문은 한 차례 있어, 이전 관찰에 비해 질문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 확인되었다. 특히 동물 인형을 누르다 바람이 나오는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아동과의 놀이를 확장하여 창의적인 놀이를 시도하여 아동과의 정서적 반응과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잠재적 능력이 발현됨도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아동과 정서적으로 조율된 상호작용을 형성하며 유의미한 놀이 경험을 공유하고, 이는 긍정적인 양육 반응 및 놀이를 통한 관계 증진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3) 도전 영역에서의 상호작용 변화

도전은 아동의 발달을 자극하고 좀 더 독립적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부모의 역할을 평가하며, 도전하는 부모 역할의 경험으로 아동은 근본적 자신감을 형성하고 현실적인 자기 기대감을 발전시킬 수 있다.

사전 평가에서 부와 모는 아동에게 적절한 도전 제공과 자발성을 촉진하는 상호작용에는 제한적임을 관찰하였다. 특히 부는 “아빠 따라 그려봐”라는 반복적인 언어적 지시를 하고, 동일한 형태의 그림만을 지속하여 그렸다. 이는 아동의 자발적인 표현 및 놀이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상호작용이다. 게다가 아동이 동그라미, 세모 그림을 완성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인정이나 정서적 피드백 없었다. 이러한 양상은 아동의 표현을 강화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긍정적 상호작용이 부족을 의미한다. 모 또한 놀이를 통해 아동에게 목표 행동을 유도하거나 학습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부와 모는 도전과제 수행 과정에서 아동의 자발성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개입 이후에는 부는 아동의 흥미를 자극하고 과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언어적·비언어적 전략의 사용이 관찰되었다. 이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보다 촉진적으로 수행하려는 태도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지속적인 주의 유지 및 자발적인 과제 수행으로 확장하고, 실생활에서 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습이 필요해 보인다. 모의 경우는 아동의 주의 끌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놀이를 확장하여였으며, 이에 아동은 흥미를 느끼며 모의 지도에 따라 도형을 그리고, 더 나아가 칭찬과 격려를 통해 아동의 수행을 촉진했다. 사전 평가 대비 지시적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 전략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양육 영역에서의 상호작용 변화

양육은 부모가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안정시키고 보살피는 능력이다. 양육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는 “넌 사랑스러워, 난 너에게 보호와 사랑 그리고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이다.

사전 평가에서 부와 모는 정서적 안정감과 돌봄 제공에 제한점을 보였다. 특히 부는 ‘1분 동안 나가 있기’ 과제 수행에서는 아동에게 별다른 언어적 예고 없이 놀이실을 떠났으며, 아동은 부가 방을 떠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혼자 놀이에 몰입하였다. 부가 다시 공간에 들어온 후에도 아동에게 자신의 재입장을 알리거나 감정적 연결을 시도하지 않고, 과제 중심의 행동으로 즉시 다음 활동에 착수하였다. 이는 아동에게 예측가능하고 안전한 상호작용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계 형성보다는 과제 수행에 초점을 두는 양육 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상에서도 부와 아동이 정서적 연결이 제한적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편, 모 또한 아동에게 사전 안내 없어 아동에게 예측 가능성이 제공되지 못했다. 그러나 아동은 일정 시간이 경과 한 후 모의 부재를 인지하고 공간 밖으로 모를 찾아 나가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개입 이후에는 부모 모두 ‘1분 동안 나가 있기’ 과제에서 부모는 공간을 떠나기 전 아동에게 명확하게 말하였으며, 나가는 행동 역시 아동이 인지할 수 있도록 수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에게 예측 가능한 상호작용 환경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의 의도가 반영된 행동으로 평가된다. 또한 ‘로션 바르기’ 활동에서도 가족 간에 서로 로션을 발라주며 신체 접촉을 매개로 긍정적인 애정을 표현하였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개입 이후 부모는 과제 수행 중심에서 정서적 연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아동의 반응 역시 이전보다 수용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양육 관계의 질적 향상이 관찰되었다. 부모는 즐거움 가운데 아동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교감하며 상호 돌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 가족놀이평가

(1) 가족협동화

가족 구성원이 자신이 선택한 크레파스를 사용해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림을 그리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림 그리는 순서를 정하는 과정, 그림의 내용, 화지에

그림이 차지하는 비율,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거나 협력하는 것 등 가족의 역동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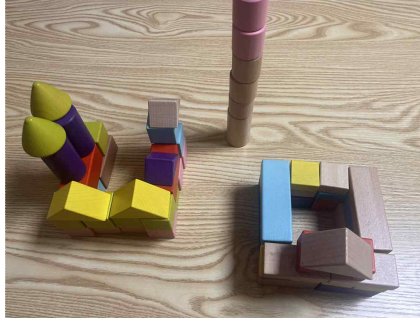
<표 4> 가족 협동화

	사전	사후
가족협동화		
제목	봄나들이 가는 행복한 우리	우리 가족의 행복한 여행
색깔 및 순서	모(파랑) → 아동(검정) → 부(빨강)	부(고동색) → 모(초록) → 아동(파랑)
특징	순서 정하기에서 상의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결국은 부가 일방적으로 모, 아동, 부의 순서로 정했다. 모는 처음에 화지에 오른쪽에 그림을 그리고 아동은 가운데 부분에 그리고, 부는 왼쪽에 그림을 그렸다. 그 후로도 가족원들은 각자 자신이 그렸던 곳에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가족원과는 서로 겹치지 않게 그렸다. 그나마 아동만 모의 그림과 부의 그림에 덧그리는 시도를 잠시 했을 뿐이다. 게다가 모가 해를 그렸음에도 부가 해를 그려 서로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림 순서를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에서 가족이 상의해서 부, 모, 아동으로 정했다. 부가 그린 그림에 모가 협력하여 나무를 완성하기도 하는 등 서로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며 그림을 완성하였으며, 아동은 모의 그림과 부의 그림에 더해 그림을 그렸다. 부가 화지를 차지하는 면적이 크며 가정에서의 역할에서 주도성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를 하나를 그리고, 그림의 제목도 상의해서 같이 지었다.

(2) 가족집 짓기

가족 구성원이 블록을 사용해 서로 상의하여 집을 짓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누가 주도하는지, 역할분담을 어떻게 나누는지, 완성된 집의 구조나 상징을 통해 가족의 심리적 거리감, 안정감, 애착 수준 등을 해석할 수 있다.

<표 5> 가족 집짓기

	사전	사후
가족집짓기		
특징	가족원이 상의하여 함께 집을 짓는 것인데, 가족원이 각자 집을 지었다. 부는 네모난 벽으로 둘러싼 집(오른쪽)을 지었고, 모는 ㄷ자 모양의 집을 지었고, 아들은 블록을 높이 쌓았다. 가족원 끼리는 대화가 없었고, 각자 자신이 앉은 곳에서 각자 자신이 집을 지어 가족원들간에 정서적 교류가 없으며, 정서적 거리감과 애착도 낮으며, 문제해결력도 부족해 보인다.	가족원이 함께 하나의 집을 지었다. 집에 대한 방향성이나 역할 분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가 쌓는 곳에 이어 모도 자신의 생각을 더해 블록을 쌓아 집을 완성했다. 집 안의 구조도 방과 거실이 있고, 외관도 모양 블록을 쌓아 멋지게 꾸몄다. 집을 지으며 가족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즐거운 모습을 집 짓기 하여 즐겁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2. 평가도구를 활용한 사전·사후 변화

가. 가족 적응력 및 응집력 (FACES III)의 변화

(1) 가족 적응력 및 응집력 사전-사후 변화

FACES III는 가족의 특성을 기능적인 관점에서 응집성과 적응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가족 간 시스템을 이해하고 평가하였다. 응집성은 격리형, 분리형, 연결형, 밀착형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며, 적응성은 혼동형, 융통형, 구조형, 경직형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이를 Olson의 Circumplex 모델에 근거하여 가족기능을 분석하면 16가지의 가족 체계 유형으로 구분된다. 응집성과 적응성이 격리·경

직, 밀착·경직, 격리·혼돈, 밀착·혼돈은 역기능이라고 하며, 분리·경직, 연결·경직, 격리·구조, 격리·유통, 밀착·구조, 밀착·유통이면 기능저하로 분리·구조, 분리·유통, 연결·구조, 연결·유통에 속하면 기능적 가족이라고 해석한다(최광현, 2016; 백보라, 2021).

본 연구에 참여한 사례 가족의 부는 FACES III 사전 평가에서는 응집성 차원에서 척도상 과잉분리(disengaged)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적응성 차원(adaptability)에서는 혼돈형(chaotic)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 정서적 유대가 매우 제한적이며, 역할 수행과 규칙의 일관성이 낮은 상호작용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호작용치료 개입 이후에는 응집성은 연결형(connected)으로, 적응성은 유통형(flexible)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가족의 기능이 ‘기능 저하’에서 ‘기능’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모 역시 프로그램 개인 전에는 응집성 차원이 분리(disengaged)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적응성 차원(adaptability)에서는 혼돈형(chaotic)이었다. 그러나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 개입 후에는 응집성은 연결형(connected)으로, 적응성은 유통형(flexible)으로 변화하여, 응집성과 적응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기능 저하’에서 ‘기능’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6> FACES III 검사 결과

항목		사전 점수		사후 점수		유형 변화
		지표 점수	유형	지표 점수	유형	
부	응집성	24	과잉분리	38	연결	과잉분리 → 연결
	적응성	17	혼돈	33	유통형	혼돈 → 유통형
모	응집성	29	분리	39	연결	분리 → 연결
	적응성	18	혼돈	31	유통형	혼돈 → 유통형



<그림 1> 가족 기능 변화 결과

(2) 가족 적응력 및 응집력 사전- 사후 변화 과정

가족의 기능의 변화는 가족놀이치료 개입 전과 후 비교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 중의 상호작용 관찰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치료 초기에는 부부간의 눈맞춤이 거의 없고 의사소통도 제한적이었으나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밀착된 활동을 하며, 부부의 신체적 거리뿐 아니라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짐이 관찰되었다. 연구 초기 면담에서 모는 'like'의 한국어 표현을 몰라 연구자에게 물어 '좋아요'라고 알려 주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배우자에게 직접 묻기보다는 연구자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르는 것 또한 부부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치료 개입 후 실시된 가족놀이 평가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설명을 모가 이해하지 못하자 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아내에게 간단한 언어 설명과 몸짓 표현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부부간 상호작용에서 정서적 친밀함과 역할의 유연성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부간의 응집력과 적응성이 보다 기능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요람태우기를 하며 모포를 잡고 좌우로 흔드는 속도를 조율하고, 놀이 중 아동의 상황을 보며 뗏목 태우기로 전환하며 비언어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친밀감과 유연성이 매우 향상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확장되어 가족 간으로 확대됨으로 볼 수 있겠다. 게다가 치료 초기에 부모 면담 시 부가 놀이실에 들어오려는 것을 아동이 문을 닫아 부의 참여를 차단하는 행동을 보여 부가 놀라고 서운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치료가 진행되며 아동은 퇴근해 오는 부를 적극적으로 반기며 부와 아동과의 정서적 유대가 향상된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가 가족의 응집성과 더불어 가족 구조의 안정성과 역할 수행의 명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적응성도 향상됨을 시사하며, 놀이실 상황이 일상으로도 확장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에게 적용하여 가족 구성

원들의 상호작용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다중 자료로 살펴본 단일사례연구이다. 선우현(2013)이 제안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연구 목적과 참여자 대상 가족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족원들의 경험과 그것이 지니는 함의를 회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특히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차이로 가족 간 상호작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FACES III(가족 적응력 및 응집성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가족 간 상호작용의 질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MIM(부모-자녀 상호작용놀이평가)을 사용하여 가족의 경험을 개입 전과 개입 후에 관찰하여 평가 하였다. 더불어 가족놀이평가 도구인 가족협동화와 가족 집짓기도 구도 개입 전과 개입 후에 시행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가족의 변화를 분석하고 통합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는 다문화가정의 가족 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변화는 가족원 간 응집성과 적응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가족기능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우선 가족 간 상호작용 방식에 질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회기별 놀이 장면 분석, MIM, 가족놀이평가를 통해 다각도로 확인되었다. 특히 회기 별 놀이 장면 분석에서는 가족원 간 상호작용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양상이 나타났다. 초기 회기에서 부부간 눈맞춤이 거의 없으며, 형식적 놀이에 그쳤던 것에서 점차 신체 놀이, 상호 협력 놀이 등을 하며 가족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회기를 거듭하며 눈맞춤과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며 친밀감이 형성되었고, 점차 비언어적·언어적 의사소통도 확장되었다. 회기 말미에는 가족원 간 상호 돌봄의 경험과 정서적 연결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 간 신뢰가 형성되었다. 또한 가족이 공동의 목표를 인식하고 협력적으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상호작용으로 확장되며, 보다 안정적인 가족 상호작용 양상이 관찰되었다.

MIM을 통해 관찰결과, 치료 초기 부모는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명확한 구조화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점차 아동의 놀이를 수용하고 조율해 나가며 아동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제공해 나갔다. 또한 놀이 초기에는 아동과의 흥미로운 놀이가 되지 못하고 일방향이거나 질문 중심의 교수적 상호작용이 주로 관찰 되었으나, 회기가 진행되며 아동과의 조율을 기반으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고 상호 즐거움으로 놀이 내용이 확장되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치료 초기 도전에서는 과제 제공과 자발성 촉진에 있어 부와 모 모두 제한적인 상호작용 양

상을 보였다. 그러나 치료 후에는 부모가 아동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바탕으로 아동의 자발성과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 방식이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도전 영역에서는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촉진적 전략이 더욱 세심하게 요구된다. 게다가 양육에서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상호작용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점차로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안정감을 나누며 이전보다 수용적인 양육 태도와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짐으로 발전하였다.

가족 놀이평가과제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과 상호존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가족협동화와 가족집짓기 과제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역동적인 변화와 협력적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초기에는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정서적 거리감이 있었으나, 치료 이후에는 가족 간에 관심을 갖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그림을 완성하였다. 집짓기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져서 나타나 초기 각자 집을 구성하였던 것에서 발전하여 개입 후에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집을 구조화하는 협력 태도가 뚜렷해졌으며, 집 형태에서 심미적 요소도 추가되고, 집 내부의 구조물도 안정적이었다. 이는 가족 간 심리적 연결성 강화와 역할 분담의 조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가 깊다.

이러한 결과는 FACES III 검사 결과로서도 확인 되었는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향상되어 가족의 기능이 ‘기능 저하’ 범주에서 ‘기능’ 범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가족 간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었으며, 가족 규칙의 유연성, 상황과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력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놀이치료 경험이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가족의 보고를 통해,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일상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가족 간 정서적 유대와 구조적 안정성이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는 한 다문가가정의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의 질과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치료 초기 눈맞춤, 의사소통의 빈약, 제한된 정서 표현, 교수적 상호작용, 부모 주도의 놀이가 주를 이루었으나, 회기가 진행되며 가족 간에 서로 조율하며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특히 신체 접촉, 표정과 몸짓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였으며, 언어적인 표현의 양도 많아지고, 일방적에서 가족의 신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서적 표현도 확장되었다. 이는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가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과 즐거움의 공

유, 긴장되고 경직되었던 신체의 이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놀이 관계 속에서 조율하는 경험 등을 통해 상호작용의 방식이 재구성되었음을 시사한다. 가족은 놀이를 매개로 하여 즐거운 놀이를 반복 경험하며, 정서적 친밀감과 관계에서의 반응 방식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이 다양한 양육 및 관계적 어려움을 겪은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강현옥, 황혜원, 2013; 민성혜 외, 2011).

둘째,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는 다문화가정의 가족원 간 응집성과 적응성으로 대표되는 가족기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으로 나타났다. FACESⅢ 검사 결과 가족기능이 ‘기능 저하’ 범주에서 ‘기능’ 범주로 향상되었으며, 상호작용놀이치료 회기 별 내용 관찰과 MIM 평가에서도 가족 간 친밀성 향상, 구조 제공, 자발성 촉진에서도 점진적인 향상이 나타났다. 특히 가족 간 눈맞춤이나 신체 접촉, 비언어적·언어적 의사소통에 현저하게 낮아 상호작용이 매우 빈약한 상태였으나, 회기를 거듭하며 신체접촉이 자연스러워지고, 상담자를 거쳐 의사소통하는 것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의사소통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등 부부간의 변화는 물론이고, 부모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아동의 흥미와 반응을 민감하게 수용하고, 놀이를 조율하며 촉진적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가족 간의 친밀감과 정서적 연결이 강화되었으며, 가족 규칙과 역할 수행의 유연해지며, 환경과 상황에 보다 적응적으로 반응해 나갔다. 또한 가족 간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감이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에도 나타나, 가족의 기능 회복이 실제 생활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가족 내 의사소통의 질이 가족 구성원 간의 응집성과 적응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다(최광현, 2016; 안창현, 김진이, 2008; 박수원, 2009). 이렇듯 선행연구 보고된 놀이 기반 개입이 가족 기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놀이를 통한 가족 간 상호작용 경험은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가 다문화가정의 가족원 간 상호작용과 가족 기능 변화에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ACESⅢ 검사를 통해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MIM의 관점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롭고 안정적인 구조 제공, 즐겁고 흥미로운 놀이 몰입,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도전 과제 제공 그리고 안전한 돌봄 제공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놀이 평가를 통해 가족 간 관심으로 상호 협력해가는 것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것은 회기 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점차 친밀감이 형성되어 지고, 의사 소통의 확장되며, 상호 호혜적인 관심과 돌봄의 장들이 펼쳐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가 위기가정 아동, ADHD 성향 아동 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러한 것이 특히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한정적으로 관찰하고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를 ‘가족 간’의 관계로 확장하여 가족 체계를 관찰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가족놀이치료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지만 가족원이 참여하며, 가족 구성원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뿐 아니라, 부부 관계 그리고 가족원들의 상호작용 등 가족 체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써 본 연구는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가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서 ‘가족 간’이라고 하는 가족 체계라의 관점에서 가족의 상호작용과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이라는 가족 기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단일 사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적 이해를 하고자 하는 사례연구로 었으나, 연구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어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권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정량적 평가로 효과성 검증도 필요하겠다. 게다가 회기 관찰과 평가에 연구자의 주관의 일부 개입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체계로서 가족 기능을 살펴보았지만, 향후 가족 하위 체계, 경계, 구조 등으로 확장하여 가족 체계론적 관점에서의 연구도 필요하겠다.

상호작용가족놀이치료는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정서적 안전감을 제공하고, 가족 간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며, 가족이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며 자율성과 유연성 그리고 적응성 향상에 긍정적 경험을 제공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양육 태도, 양육 스트레스를 넘어 가족원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가족 기능향상이 필요한 다문화가정과 다양한 가족을 지원에 활용될 수 있다. 부모 교육과 가족치료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현옥, 황혜원(2013). 다문화가족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 및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4), 433 - 459.
- 김광웅, 유미숙, 유재령. (2004). *놀이치료학*. 서울: 학지사.
- 김다정(2018).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를 적용한 목회자 가정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부모 양육태도 변화.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애, 선우현(2016).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가 모-자녀 간 상호작용 및 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모 자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9(4), 381-403.
- 김혜영, 김정희(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11(1), 25-48.
- 남은향(2017). 다문화가정 부모-아동 상호작용 변화 연구 :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를 적용하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남숙, 한유진(2014). 애착문제 유아 가족을 위한 인형을 이용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115-135
- 류경애(2014).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육 인식 변인과 학습 능력에 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7(2). 59-80.
- 민성혜, 김경애, 김란주(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아동학회지*, 32(1), 31 - 49.
- 박수원(2003).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자(2015).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이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5(6). 247-258.
- 박재훈(2023). ADHD 성향 아동 가족의 가족놀이치료 개입 변화 연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보라(2021). Olson의 가족진단 평가와 동물상징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부부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우현(2010).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가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 가족치료적 관점을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14(3), 1 - 18.
- 선우현(2013).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놀이치료연구*, 17(1), 69 - 81.
- 선우현(2021). 위기 가족을 위한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사례연구: 의사소통과 애착을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25(2), 1 - 20.
- 안창현, 김진이(2008). 부부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및 가족 응집성·적응성과 갈등대처방식 간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16(2), 95 - 114.
- 오만석(2011).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현실과 과제: 여섯 가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4(1), 43-47.
- 오옥선, 김성봉(2012).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 들여다보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2), 235-240.
- 우양호, 안미정(2016).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그 영향요인. *지방행정연구*, 30(2), 25 - 50.
- 이미령(2021). 위기 가족을 위한 공간중심 가족 놀이치료 사례연구: 의사소통과 애착을 중심으로. *웨스트민*

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인혜(2022). 가족인행놀이치료를 적용한 한부모 가정 모-자녀 간 상호작용 사례연구.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채호(2024). 유아기질과 가족기능이 유아 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 연구, 24(5), 389-398.

양기정(2023).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가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부모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통합치료학회, 15(1), 5-34.

연은모, 최효식(2020). 가족기능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5), 123-134.

장은화, 이성한(2022).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어려움에 관한 사례연구. 아동연구, 32, 113-130.

정은(2009). 가족상담- 모델과 사례-. 서울: 창지사.

정지영(2007). 가족 유연성과 응집력 평가척도(FACES IV)의 한국판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광현(2016). Olson의 Circumplex 모델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과 다문화 아동의 자아탐색, 또래 및 가족관계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4(4), 103-112.

통계청(2024). 2022년 다문화가구 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한서연(2011). 가족간 상호작용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예지, 이순형(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 부담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11(1), 105 - 125.

황혜원(2013). 가족탄력성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이 저소득층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일반가정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2), 81 - 103.

Bowlby, J.(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Basic Books.

Barnes, H. L., Olson, D. H.(1985). Parent -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2), 438 - 447. <https://doi.org/10.2307/1129732>

Eliana Gil(2016). 가족놀이치료: 가족치료에서 놀이의 활용[Play in Family Therapy]. (진혜련, 허미정, 최연실). 서울: 학지사(주)

Haines, J., Rifas-Shiman, S. L., Horton, N. J., Kleinman, K., Bauer, K. W., Davison, K. K., Walton, K., Austin, S. B., Field, A. E., Gortmaker, S. L.(2016).

Family functioning and quality of parent - adolescent relationship: Cross-sectional associations with adolescent weight-related behaviors and weight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3, Article 68.

Landreth, G. L. (2012). 놀이치료: 치료관계의 기술 (김광웅·유미숙 옮김). 서울: 학지사.

Mark Worden(2007). 가족치료 단계별 접근. (신혜중, 정수경). 서울: 세계이저리닝코리아(주)

Persram, R. J., Commisso, M., Bukowski, W. M.(2025). Family functioning and youth adjustment: The role of sibling and friend securit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99, 101829.

Ye, Z.-Y., Han, Z.-Y., Zhong, B.-L. (2025). Family functioning and anxiety in children: A narrative

review. Translational Pediatrics, 14(9), 2311 - 2320.

<Abstract>

A Single-Case Study of Interaction-Based Family Play Therapy on Family Func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Son, Bo-kyeong . Sunwoo, Hyun

Mind Design Psychological Counseling Institute · Myongji University

A Single-Case Study of Interactive Family Play Therapy on Family Functioning in a Multicultural Family. This single-case study explored, using multiple data sources, how Interactive Family Play Therapy (IFPT) was experienced by a multicultural family and its effects on parent-child interaction and family functioning. The IFPT program, consisting of six sessions, was conducted with a multicultural family in Gyeonggi-Do. Data were collected through video recording of family interactions in each session and analyzed using the Marschak Interaction Method (MIM), the Collaborative Family Drawing Task, the Family House-Building Task, and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FACES III). The results indicated that IFPT led to positive changes in the quality and patterns of interactions among family members and that overall family functioning, specifically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improved.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FPT strengthened emotional bonds, promoted positive family interactions, and enhanced parental role flexibility. This study is clinically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concrete case-based demonstration of how positive interactions contribute to improved family functioning and confirms these effects at a systemic level beyo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Key words: Interactive family play therapy, multicultural family, family function, family interaction,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③ 본 향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 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한다.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 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1) 연구자는 국내 · 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2) 연구자는 국내 · 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아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투고규정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놀이치료, 상담심리, 언어치료, 예술심리치료, 음악치료 및 심리상담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논문으로서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 이상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 제출은 e-mail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원고작성 시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원고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의거한 규격용지 기준 국문원고 15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마. 투고 시 원고 겉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명기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통합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체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사. 투고시 심사비 8만원(급행논문 심사비 12만원), 게재 확정시 10만원(15쪽 기준)을 납부하며 15쪽(본 학술지의 편집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쇄쪽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아.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자. 『통합치료연구』는 연2회 발간(2월 25일, 8월 25일)하고 있다.

차. 논문의 인쇄 용 최종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이 논문의 저작권(디지털 저작권 포함)과 전송권은 학회로 귀속된다.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1. 원고 작성 개요

가. 작성 도구: 한글 3.0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원고 용지

(1)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190×260)

(2) 용지 여백: 위쪽 18, 아래쪽 20,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다. 문단 모양 : 줄간격 170

라. 글자 모양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문단정렬	비고
제목	신명조	18p	100	0	가운데	진하게
저자명	중고딕	10p	100	0	오른쪽	1줄 띄고
소속	신명조	9p	100	0	오른쪽	
요약	중고딕	9p	95	-5	양쪽정렬	1줄 띄고 줄간격 140 좌우여백 :4
본문	신명조	11p	95	-5	양쪽정렬	
그림	중고딕	10p	95	-5	하단 가운데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 명조
표	중고딕	10p	95	-5	왼쪽상단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 명조
참 고 문 헌 제목	견명조	14p	95	-5	가운데	
참 고 문 헌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4p	95	-5	가운데	진하게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부록제목	중고딕	10p	95	-5	왼쪽	진하게
부록내용	신명조	10p	95	-5	양쪽정렬	

마. 제목의 번호 붙임

- 1단계: I. II. III. (2줄 띄고, 14p, 견명조, 가운데)
- 2단계: 1. 2. 3.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가. 나. 다.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1) (2) (3) (1줄 띄고 4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 5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 6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바. 들여쓰기

문단의 첫 문장은 3칸에서 시작, 문장과 문장 사이는 1칸으로 하고, 문단과 문단사이
는 1줄 띄지 않는다(“참고문헌”의 들여쓰기는 9칸에서 시작함).

사. 용어의 사용

-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적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
어가 처음 나왔을 때 () 속에 원어나 한자를 쓴다.
- (2)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연속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쉼표 없이 “그리고”, “와(과)”, “및”, “혹은” 등을 삽입한다.

2. 인용 사항

본문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단어 및 구두점 등의 모든 사항이 인용되는 원
문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인용부분의 길이에 따라 다음 규정을 지킨다.

가. 인용내용이 짧은(1-2행) 경우 에는 본문 속에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기술하
며, 인용내용의 끝에 인용출처(저자, 출판년도)를 밝힌다. 한 문장 내에서 내용
을 축약하는 경우에는 반 칸을 띄운 후에 세 개의 공간점“...”을 사용한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2003)

나. 인용내용이 긴(3행 이상) 경우 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경우에
는, 인용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인용문의 출처는 “저자(출판년도)”를 먼저 밝히고 인용문을 적거나, 인용

문 뒤에 “저자(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이승환(2005)은 언어병리학이 다학문적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수교육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문인들과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의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과 팀을 구성해야 할 장애유형도 많다. 그래서 상호 의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각주(脚註, footnote) 와 후주(後註, endnote)

가.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나. 그 대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후주의 사용을 허용한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본문 내 해당되는 곳에 반 괄호를 붙인 어깨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본문의 가장 뒤, 참고문헌 바로 앞에 기술한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부호(“ ”)를 달고 기술하며, 인용처(저자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예 1: 김영옥(2003)에 의하면 “.....”

예 2: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영옥, 2003)

나. 간접 인용의 경우 : “저자”와 “출판년도”를 아래 예들과 같이 명기하되, 출판년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고 (단, “참고문헌”에서는 반 칸을 띄어 쓴다),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쓴다.

예 1: 이 이론에 대하여 고도홍(2003)은.....

예 2: 이 이론에 대하여 Pinker(1975)는.....

예 3: 한 연구(고도홍, 1995)에 의하면.....

예 4: 최근의 연구(고도홍, 1995; Boone, 1990)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1)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일 경우, 최종 저자 앞에 “및” 또는 “와/과”로 표기한다. 또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한국인인 제 1저자의 성과 이름 뒤에

“등/외”를 표기하고, 외국인은 제 1저자의 성 뒤에 et al.을 표기한다.

예 : 김수진, 윤미선 및 김정미(2002)는... 첫 인용

김수진 등(2002)은... 반복 인용

Boone, Hodson & Paden(1995)은... 첫 인용

Boone et al.(1995)은... 반복인용

(2) 6인 이상이면 제1저자만 기재하고 “000 외”나 “0000 et al.”등으로 표시한다.

5. 참고문헌 작성법

가.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한, 중, 일, 기타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작성의 경우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나. 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한다. 영문 이름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만(예: Kim, H. K.) 표시한다.

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

예: 2005a,

라. 단행본(연수회 교재, 발표회 교재 및 검사도구 포함)의 경우:

(1) 국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1: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예 2: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 영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Van Riper, C. & Erickson, R. L.(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MA: A Simon & Schuster Co.

마. 단행본 속의 논문 또는 단원(chapter)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단원]명. 편집자[기관]명(편). 단행본명. 발행지:

발행처.

예: 김영태(2000). 조음음운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이론.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편). 말·언어임상 전문요원교육: 조음음운장애 및 실어증 치료기법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한학문화.

(2) 영문: 위와 동일하나 출처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아래 예와 같이 단행본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단행본 저자가 1명인 경우에는 “(Ed.)”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Eds.)”로 표기.

예: Beeson, P. & Hillis, A.(2001).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written words. In R. Chapey(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4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3) 단행본이 재판(再版)이상 : 단행본명 뒤의 ()안에 “3판” 혹은 “3rd ed.” 등으로 표기.

바. 정기간행물(학술지) 속의 논문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논문수록 학술지명, 권(호) 번호, 페이지.

예: 장빛나, 김수지(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2) 영문: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

예: Kim, S. J.(2010). Music therapy protocol development to enhance swallowing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Journal of Music Therapy*, 57(2), 102-119.

사. 학위논문의 경우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수여대학. 학위명.

예: 김민정(2004). 아동용 한국어 조음검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이탤릭체). 학위명, 학교명 및 학교소재지.

단,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박사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 Sim, H. S.(1996). Kinematic analysis of syllable repetition and

sound prolongation in children who stut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아. 번역서의 경우

- (1) 원저자명(출판년도). 번역서명[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표기]. (역자명). 번역서의 출판지: 번역서의 출판사명.

예 1: 정옥란(역)(1993). 음성과 음성치료. 대구: 배영출판사.

예 2: 이승복, 한기선(공역)(2000). 의사소통 과학과 장애: 과학에서 임상실습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자.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 (1) 저자명(발표된 년도). 발표제목. 자료명. 발표장소.

예 1: 윤미선, 이봉원(2005). 한국어 어휘 특성에 따른 단어인식 검사에 대하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북대학교, 전주.

예 2: Pae, S. & Yoon, H. J.(2005). Reading miscue analysis of the Korean second grad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차. 기관이 저자인 경우:

- (1) 국문 : 기관명을 저자로 명기(발행년도). 단행본명. 발행도시명: 기관명에 준하여 “동부”, “동 협회”, “동 학회” 등으로 표기.

예: 문화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 동부.

- (2) 영문 :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가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도시명: 을 적은 후에 “Author”라고 표기.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uthor.

6. 표, 그림 및 부록

가. 표, 그림 및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각각 붙이되,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삽입하고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 <표 1>, <그림 1>

나. 표 및 부록의 제목은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

다. 표, 그림 및 부록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부록의 경우에는 하단 왼쪽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명기한다.

라. 부호를 사용할 때의 글씨체 및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1) p, F, t는 신명조체의 이탤릭체로 쓴다. 단, M, N, SD는 신명조체의 정자체로 한다.

(2) 부호 사이는 반 칸 띄어 쓴다(예: $p<.001$, $F(1,129)=2.71$, $t=4.52$).

(3) *는 윗 첨자의 형태로 통계표 안의 t값과 표 밑의 p값을 제시할 때 쓴다.

(예: *t, * $p<.05$)

마.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표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003$)

7. 초록

가. 한글 논문의 경우

(1) 한글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한글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2) 영문초록: 10줄 내외의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3) 핵심어: 3-5개의 핵심어를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밑에 쓴다.

나. 영문 논문의 경우

(1) 영문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영문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2) 한글초록: 1쪽 이내의 한글초록(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3) Key Words: 3-5개의 핵심어를 영문초록과 한글초록 밑에 쓴다.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예술심리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심리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예술심리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 정지)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 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학술위원장 : 1명
6. 학제 간 연구위원장 : 1명
7. 편집위원장 : 1명
8. 국제교류위원장 : 1명
9. 윤리위원장 : 1명
10. 홍보위원장 : 1명

제14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4장 기 구

제18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운영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19조 (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 · 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위원장, 학제 간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국제교류위원장,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20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1. 편집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2. 국제교류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3. 학제 간 연구 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모델 연구

4. 홍보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대외협력 및 홍보

5. 학술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발표, 세미나, 교육특강 등 주관 및 교육

제5장 회 의

제2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총회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운영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6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시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7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3. 본 개정은 2017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편 집 위 원 장 : 이상은(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 선우현(명지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이아라(경상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임지숙(명지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통합치료연구 제17권 1호

2025년 8월 25일 인쇄

2025년 8월 25일 발행

발행인: 노남숙 (한국통합치료학회장)

(우)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국제관 4715호

E-mail: ksit@naver.com / ksit_journal@naver.com

인쇄처: 금성인쇄

이 학회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통합치료학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